

청소년, 성인, 노인 세대의 차이와 생활만족도¹⁾

김의철²⁾

박영신

김명언 이진우 유호식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인하대학교 교육학과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성인, 노인의 세대차 인식과 심리 행동특성의 차이와 유사점을 살펴보고, 나아가서 이들 각 집단의 생활만족도 형성에 세대차 인식과 심리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청소년과 성인은 집단으로, 노인은 개인 면접방식으로 질문지를 실시하였으며, 최종 분석대상은 총 2,789명이었다(청소년 981명, 성인 1,661명, 노인 147명). 세대차 인식에 있어, 노인이 청소년이나 성인보다 세대차이와 세대갈등을 많이 지각하였다. 청소년, 성인, 노인 모두 생활목표로서 가정화목을 가장 중요하게 의식했으며, 사회봉사는 노인이, 자아실현은 청소년이 목표로 하는 정도가 높았다. 진보지향가치는 청소년이 높았으며, 보수지향가치는 노인이 가장 높고 성인 청소년의 순서였는데, 청소년은 남자가, 노인은 여자가 더욱 보수적이었다. 청소년, 성인, 노인 모두 효능감의 하위 변인 중에서 관계효능감이 가장 높았으며, 세대집단별로는 노인이 가장 관계효능감과 스트레스대처효능감이 높았는데, 남자는 세대집단별로 효능감의 변화가 거의 없는 반면에, 여자는 청소년에서 성인을 거쳐 노인이 될수록 자기효능감이 증가하였다. 생활만족도는 노인이 가장 높았으며, 남자는 청소년보다 성인에서 만족도가 감소하였다. 안정된 직업을 선호하는 정도는 노인이 가장 높고,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인기직업을 부러워하는 정도가 높았다. 세대갈등에 대한 대처양식으로 세집단 모두 자기조절대처를 가장 많이 하였는데, 청소년은 남자가, 성인과 노인은 여자가 더욱 자기조절의 대처양식을 많이 활용하였다. 세대집단별로는 노인이 자기조절 및 사회적 지원 추구 대처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노인이 가장 전문지향 역할행동을 많이 하고 성인 청소년의 순서였는데, 청소년과 성인은 남자가, 노인은 여자가 더욱 전문지향 역할행동을 하였다. 일상행동에서도 세대차이가 있었으며, 청소년이 가장 컴퓨터나 통신기기를 많이 활용하며, 락 힙합음악을 선호하고 쇼프로를 많이 보는 반면, 성인과 노인은 트로트 음악이나 뉴스프로를 선호하였다. 생활만족도의 형성과 관련하여, 세 집단 모두 관계효능감과 가정의 사회경제적지위가 중요한 변인으로 확인되어, 효능감이 높고 사회경제적지위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이외에도 청소년은 부모와 세대차로 인한 갈등이 적을수록, 보수지향가치를 갖고 있을수록 만족도가 높았다. 성인은 어려움 극복 효능감이 높을수록, 자아실현과 관련된 생활목표의식이 강할수록 만족도가 높았다. 노인은 핵가족보다 대가족에서 생활하는 경우에 만족도가 높고, 진보지향가치를 가질수록 만족하였다.

세대의 개념은 일차적으로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범주로 이해될 수 있다(임희섭, 1986). 왜냐하면 동일 연령집단에 속하는 개인들은 많은 사회적 경험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생애주기도 비슷하여, 하나의 세대로서 간주될 공통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생물학적

인 연령 외에 사회적 기능을 중심으로 세대를 범주화하기도 한다. 박재홍(1992)은 세대 개념을 동일한 문화권에서 비슷한 시기에 출생하므로써 공유하게 된 역사적 문화적 경험에 따라, 유사한 사고방식과 행위양식을 갖는 사람들의 집단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1 이 논문은 한국학술진흥재단 1998년도 인문사회과학 중점영역연구 과제(과제명: 세대갈등과 사회질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2 교신저자 : 김의철,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중앙대학교 문과대학 심리학과, 156-756. E-mail: uicholk@chollian.net

관점에서는 세대를, 현재의 사회질서를 형성하고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기성세대와 기존질서에 대해 새로운 창의력과 적응력을 가지고 변화를 시도하는 청소년세대로 양분한다(임희섭, 1986). 김명언, 김의철, 및 박영신(2000)도 유사한 삶의 경험을 통한 공동의 의식과 행동양식 및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집단을 동일 세대라고 정의하고, 청소년세대와 그들의 부모에 해당하는 성인세대로 세대를 구분하여, 두 세대집단 간의 차이와 유사성에 대한 검토를 시도한 바 있다. 세대차에 대한 연구는 서양에서도 많이 있었는데, Bengtson(1970)은 세대차 연구들을 세가지 유형, 즉 세대차가 있다는 결과, 세대차는 환상에 불과한 것이며 없다는 결과, 부분적인 차이와 연속성이 있다는 결과로 종합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논쟁에 대한 검토를 목적으로 Traub와 Dodder(1988)가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는, 세대차이가 크게 존재하는 것으로 결론을 얻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에서의 세대차이 문제에 대한 이해를 위해, 현재의 사회질서를 형성 관리하는 성인세대와 미래 사회를 향하여 기존의 질서에 변화를 꾀하려는 청소년세대 외에도, 현재의 사회가 구성되는 것이 가능하도록 과거로부터 그 기초를 마련하고 현재 사회의 주역에서 은퇴한 노인세대에도 관심을 기울이고자 한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현재는 과거 그 자체가 아니지만, 현재는 과거에 기반을 두고 변화된 것이며, 미래는 현재와의 연결을 통해 과거와 이어진다. 노인세대는 현재의 사회질서가 구성되는 데 기여하였기 때문에, 청소년과 성인만이 아니라 노인까지 포함하여 세대차이의 문제를 연구하는 것이 요구된다.

‘현대 한국사회의 변동과 세대집단별 경험의 차이’(김명언, 김의철, 박영신, 2000; 그림 1 참고)를 정리한 결과에 의하면, 현재 약 65세 정도의 노인들은 일제 식민지시대에 태어나 조선총독부의 창씨개명을 강요받는 시기에 아동기를 보냈고, 청소년기에 조선이 해방하고 대한민국이 수립되었으며 곧이어 한국전쟁이 발생하므로써 생사가 한순간에 교차되는 엄청난 위기를 경험하였다. 청년기에는 4.19혁명, 5.16군사쿠데타, 월남전 파병 등으로 혼란한 시기를 보냈으며,

성인초기에 2차 3차 경제개발계획의 진행으로 농경사회에서 공업화사회로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한국 현대사의 급격한 변화를 삶으로 체험해 왔다. 이에 비해 지금의 10대 청소년들은, 올림픽이 서울에서 개최되고 문민정부가 출범되었으며 GNP \$10,000에 돌입하고 한국이 OECD에 가입하는 정도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시기에 그들의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다.

해방 이후 한국 사회의 급격한 사회변동 속에서, 현재의 노인들은 협동과 조화가 중요한 전통적인 농경시대에 보릿고개를 경험하며 청소년기를 보냈다면, 현재의 성인들은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하던 공업화시대에 청소년기를 보냈고, 현재의 청소년들은 정보화시대에 태어나 첨단과학 기술의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는 집단이다. 노인들은 대부분 농촌사회에서 생활하였다면, 성인들은 농촌사회에서 태어나 산업화사회에서 성장하고, 절약과 검소 고생과 노력 경쟁과 투쟁을 통해 도시사회로의 변화와 성취에 기여한 집단이다. 현재의 청소년세대는 처절한 고생이나 노력을 하지 않았어도 성공한 산업화시대의 풍요를 누리고 여유를 갖고 즐기며 삶의 질을 추구하며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세 집단간에 심리적이고 행동적인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으리라고 예측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Elder(1981, 1994)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시대가 제공하는 독특한 삶의 경험들이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과정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였다. Mannheim(1952)은 질적으로 다른 성장배경이 세대차이를 형성하는 원인으로 중요한데, 즉 청소년기 경험은 그 이후의 경험들에 의미를 부여하는 기초로 작용하며, 이러한 누적된 경험들이 의식을 형성하는 기반이 되어, 세대간의 차이를 나타내게 된다고 본다. Inglehart(1997)에 의하면(나은영, 민경환, 1998 재인용), 한국은 물질주의에서 탈물질주의로 가장 급속하게 변화하는 나라로, 변화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세대차가 크게 벌어져, 미국 유럽과 같은 서양의 나라나 일본이나 중국과 같은 동양의 나라들에 비해 가장 세대차이가 큰 나라라는 지적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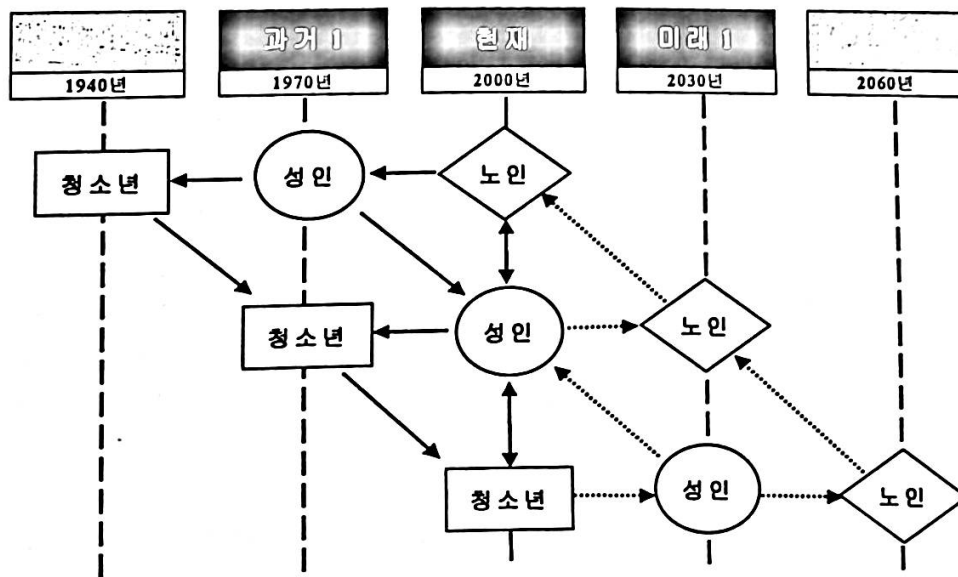


그림 1. 세대집단별 시각차이

다른 경험들로 점철된 삶의 역사를 지닌 청소년, 성인, 노인집단이 심리 행동 특성에서 차이를 지닐 수 밖에 없음은, 그림 1에 제시한 세대집단별 시각차이에 의해서도 설명된다. 노인은 자기가 성인이었던 시절의 경험에 기초하여 현재의 성인을 조망하며, 마찬가지로 자기가 청소년이었던 시절의 경험과 사고의 틀에 기초하여 현재의 청소년을 이해하려고 한다. 물론 현재의 성인도 과거 자기의 청소년시절의 심리와 행동에 기반을 두고 현재의 청소년을 바라본다. 따라서 성인과 노인은 청소년집단에 대해 많은 세대차이를 지각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청소년은 자기가 예측하는 성인으로서 미래의 자기모습을 전제로 현재의 성인을 바라보고, 나아가서 자기가 미래에 노인이 되었을 때의 자아상에 터하여 현재 주변에서 만나는 노인들에 대해 판단한다. 또한 현재의 성인은 자기의 미래 노인으로서의 모습에 기초하여 현재의 노인들을 바라보므로써, 청소년이 성인이나 노인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많은 차이가 존재하게 된다.

기성세대의 경험이 세대 차이 인식의 배경으로 작용하므로써, 기성세대의 젊은 세대에 대한 세대차이 인지가 기성세대 개개인의 생애사적 배경을 바탕

으로 하고 있음은 박재홍(1999)도 지적하였다. 40세 이상 기성세대의 생애사를 질적으로 분석한 결과, 응답자 다수가 반복적으로 지적인 주제들은 크게 3가지로서, 경제적 궁핍, 도시이주와 직업활동, 사회갈등(성 차별, 민주화운동, 세대갈등)이었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젊은 세대를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박재홍(1995)은 1970년대에 출생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젊은이를 지칭하는 고유명사로서의 신세대의 세대경험을 신세대 특성과 관련하여 설명한다. 즉 경제(경제적 풍요), 문화(범지구화 globalization), 정치(동구권 붕괴, 국내정치 안정), 교육현실(통제와 자율)과 관련된 구조적 배경이, 대중 소비문화의 발달과 관심/욕구의 다원화라는 문화적 매개변인을 거쳐, 소비지향적 개인지향적 탈권위지향적인 신세대의 특성으로 형성되었다고 본다.

문용린, 류방란, 유한구, 박종효 및 최지영(1996)은 신세대의 전형적인 가치를 개성주의와 여가주의로 분류한다. 기성세대는 사회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 가정적으로 안정되기 위해 자신의 개성을 희생하고 여가를 즐기기도 일과 성취를 중시하였다면, 신세대들은 무엇보다 자신의 개성과 여가를 중시한다

는 것이다. 일과 여가에 대한 태도와 관련하여 한국 사회학회(1990)의 분석 결과도, 40대 이상은 '일 우선'에 대한 반응율이 높으나, 40대 미만은 '여가 우선'에 대한 반응율이 높은 차이가 확인된 바 있다.

김명언, 김의철, 및 박영신(2000)이 청소년과 성인세대 집단간의 세대차지각, 심리 행동특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많은 세대차이가 있었다. 예컨대 청소년은 성인보다 세대차로 인한 갈등을 더욱 지각하였으며, 청소년은 진보지향적, 성인은 보수지향적인 가치를 추구하였다. 청소년은 인기직업을 부러워하였으며, 성인은 안정되고 인정받는 직업을 선호하였다. 성인은 생활목표로서 사회봉사를, 청소년은 자아실현이나 부귀영화 및 가정의 화목을 중시하였다. 성인이 청소년을 평가하는 것보다 청소년이 성인을 더욱 효능적이라고 평가하며, 실제 성인이 청소년보다 효능감이 높았다. 세대갈등의 대처양식에 있어 청소년은 회피하는 경향이 높고, 성인은 적극적으로 해결하였다. 청소년은 역할행동에서 진보지향적이고, 성인은 전통지향적이었다. TV시청이나 음악 선호도에서도 차이가 있어 청소년일수록 랩이나 힙합을, 성인은 트로트나 민요를 선호하였다. 청소년이 신세대의 개성적 멋내기를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컴퓨터도 많이 사용하고 통신기기도 다양하게 활용하였다.

또한 두 세대집단이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유사성이 있었다. 즉 세대갈등에 대해 자기조절적인 대처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생활목표의식으로서 가정화목에 대한 목표가 가장 높았으며, 가치관이나 역할행동에 있어 보수적이기보다는 진보지향적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성인, 노인의 세대차 인식과 심리 행동특성의 차이와 유사점을 살펴보고, 나아가서 각 집단의 생활만족도 형성에 세대차 인식과 심리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김명언 등(2000)이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세대간 차이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바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노인까지 표집대상으로 포함하여, 세 집단간의 차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김명언 등(2000)의 연구에서는 세대집단간의 차이를 명료하게 규명하기 위해, 외생

변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성별의 효과를 제거하고 공변량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성인, 노인세대 집단의 차이가 성별로 상호작용 현상을 나타내는지에도 관심을 갖는다. 따라서 이원변량분석을 통해 세대집단과 성별간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해서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생활만족도 형성에서 세대간의 차이도 비교하고자 한다. 초등학교생(박영신, 김의철, 김영희, 민병기, 1999), 중학생(김의철, 박영신, 박금주, 1998), 초·중·고등학생(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이상미, 권혁호, 양계민, 예정)을 대상으로 생활만족도 형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 사회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이 중요한 변인으로 확인된 바 있다. 한편 서병숙과 이현(1995), 이신숙(1997) 등의 연구에서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사회적 지원이 중요함을 밝히고 있으나, 자기효능감이 어떠한 기여를 하는지에 대해 한국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과 성인 및 노인의 생활만족도 형성에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Bengtson과 Kuypers(1971)는 성공적 노화의 7가지 기준(수명, 생물학적 건강, 정신건강, 인지적 효능, 사회적 능력과 생산성, 개인적 통제, 생활만족도) 중에 생활만족도를 포함하고 있다(윤진, 1995 재인용). 이 연구에서 특히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분석 결과는,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방 법

대 상

이 연구를 위한 최종 분석대상이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 분석대상은 총 2,789명으로서, 청소년이 981명, 성인이 1,661명, 노인이 147명이었다. 성별로는 남자가 1,298명, 여자가 1,489명으로 구성되었다. 1차 분석을 위해 표집된 청소년집단에는 초등학교생 153명(남 71명, 여 82명), 중학생 333명(남 121명, 여 212명), 고등학생 252명(남 133명, 여 119명), 대학생 246명(남 74명, 여 170명, 성별 무응답 2명)이 포함되

었다. 성인은 남자가 831명, 여자가 830명이었으며, 이들은 모두 표집 대상 청소년의 부와 모이었다. 초등학교를 청소년 초기로 간주하여 6학년을 표집하였으나, 표집대상 중에 10세가 1명 포함되어 있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대학생은 청소년 후기로 간주하여 표집하였으나, 20대 후반에 해당하는 2명(26세-1명, 28세-1명)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노인은 160명이 표집대상이었으나,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질문지 실시를 끝까지 할 수 없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하여 자료로서의 가치가 없는 12명의 자료를 제외한, 148명이 1차 분석대상이었다. 노인 표집대상은 모두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완전히 은퇴하고 노인정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노인복지회관의 다양한 취미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었다. 노인 1차 분석대상의 연령분포를 구한 결과, 46세가 1명 포함되어 있었다. 비록 노인정에 나와 다른 노인들과 함께 소일하고 있지만, 연령차원에서 볼 때 노인집단에 포함하기 어려우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와같은 이유로 총 3명의 자료를 최종분석에서 제외한 뒤, 각 집단별 평균 연령을 구한 결과는, 청소년 16세, 성인 45세, 노인은 65세이었다.

표 1
분석대상

	청소년	성인	노인	계
남	398	831	69	1,298
녀	581	830	78	1,489
무응답	2	-	-	2
계	981	1,661	147	2,789
연령 평균	15.81	44.59	65.37	35.46
표준편차	2.94	4.73	5.77	15.95
범위	11-25	33-62	55-82	11-82

분석대상 노인들은 핵가족이 104명(70.3%), 대가족이 32명(21.6%), 무응답 12명(8.1%)으로서, 10명 중 7명 정도가 노인 부부끼리 핵가족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현재 가정의 경제생활 수준에서는 상 4명(2.7%), 중-상 21명(14.2%), 중 79명(53.4%), 중-하 35명(23.6%), 하 6명(4.1%), 무응답 3명(2.0%)으로서, 거의

대부분이 중간정도의 경제생활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집대상 노인들은 교육정도의 면에서 초등학교 졸업이 33명(22.3%), 중졸이 30명(20.3%), 고졸이 67명(45.3%), 대졸 이상이 14명(9.5%), 무응답 1명(0.7%)이었다.

분석대상 성인들의 가정형태별 빈도를 보면, 핵가족이 1,358명(69.0%), 대가족이 221명(11.2%), 무응답이 12명(8.1%)으로서, 노인들과 마찬가지로 약 10명 중에서 7명 정도가 핵가족 형태에서 생활하였다. 가정 경제생활 정도의 면에서 볼 때, 상 12명(0.6%), 중-상 152명(7.7%), 중 885명(45.0%), 중-하 454명(23.1%), 하 87명(4.4%) 무응답 378명(19.2%)으로서 75.8%가 중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정도는 초등학교 졸업이 83명(4.2%), 중졸이 277명(14.1%), 고졸이 936명(47.6%), 대졸 이상이 299명(15.2%), 무응답이 373명(19.0%)으로서, 고졸이 약 과반수를 보이고 있다. 분석대상 성인들은 분석대상 청소년들의 부모이므로, 청소년들의 가정형태, 가정의 경제생활수준은 성인들과 동일한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설명된다.

도 구

이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김명언 등(2000)이 제작하여 사용한 질문지를 그대로 활용하였다.³⁾ 측정도구의 변인 및 문항의 제작을 위해, 청소년과 성인집단 각각 6명씩 구성하여 집단면접(FGI; Krueger, 1994)을 하였으며, 자유반응형 질문지를 실시하여 응답결과를 분석하였다. 질문지는 세가지 내용 즉 세대차 인식과 심리특성 및 행동특성으로 구성하였으며, 이외에 연령, 성별, 학교수준, 교육정도, 직업, 경제수준, 학업성적 등 필요한 배경정보를 추가하였다. 청소년용, 성인용, 노인용 질문지의 측정변인은 동일하였으며, 단 청소년은 부모에 대해, 성인은 청소년 자녀에 대해, 노인은 손자나 손녀에 대해 세대차를 지각하는 정도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3 도구제작과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김명언, 김의철, 및 박영신(2000)의 '연구방법'에 제시되어 있다.

각 변인의 Cronbach α 신뢰도는 대체로 양호하였다. 세대차 인식은 세대차 지각(학업: $\alpha=.75$, 생활: $\alpha=.79$, 여가/기호: $\alpha=.66$)과 세대갈등($\alpha=.87$)의 두 변인이 포함되었다. 세대차 지각은 각 5문항씩 총 15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이러한 세대차로 인해 경험하는 갈등의 정도를 측정하는 세대갈등은 7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심리특성은 6개 변인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생활목표의식은 일상생활에서의 목표와 관련된 18개 문항을 요인분석하여 사회봉사(5문항, $\alpha=.72$), 가정화목(4문항, $\alpha=.72$), 자아실현(5문항, $\alpha=.76$), 부귀영화(4문항, $\alpha=.72$)의 4개 하위변인으로 구성하였다. 가치관은 16개 문항을 요인분석하여 보수지향 가치관(9문항, $\alpha=.56$)과 진보지향 가치관(7문항, $\alpha=.68$) 하위변인이 추출되었다. 자기효능감은 5개 하위변인으로서, 김의철과 박영신(1999)이 제작한 사회성 효능감($\alpha=.82$)과 관계 효능감($\alpha=.73$) 및, Bandura가 제작한 스트레스 대처 효능감($\alpha=.78$)과 어려움극복 효능감($\alpha=.82$) 및 자기주장 효능감($\alpha=.78$)을 기초로 하였다. 자기효능감 측정문항은 총 30개였으며, 각 하위변인은 6개 문항씩으로 이루어졌다. 다른 세대에 대한 효능감 평가인은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을 대표하는 내용의 5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청소년은 부모의 효능감을, 성인은 청소년 자녀의 효능감을, 노인은 청소년 손자 손녀의 효능감을 평가하였으며, α 신뢰도는 .79이었다. 생활만족도($\alpha=.83$)는 개인생활의 만족 및 인간관계의 만족을 포함하는 10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부러워하는 대상은 9개 직업에 대해 부러워하는 정도를 반응한 결과를 요인분석하여, 전문직($\alpha=.73$), 안정직($\alpha=.65$), 인기직($\alpha=.54$)으로 구성하였으며, 각각 3개씩의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행동특성은 세대갈등 대처양식, 역할행동과 일상행동의 3개 변인으로 구성하였다. 세대갈등 대처양식의 하위변인은 자기조절(3문항, $\alpha=.59$), 회피(4문항, $\alpha=.60$), 적극적 해결(4문항, $\alpha=.75$), 사회적 지원추구(4문항, $\alpha=.72$)의 4개였다. 역할행동은 전통지향 역할행동($\alpha=.60$)과 진보지향 역할행동($\alpha=.53$)으로 나뉘었는데, 각각 7개 문항으로서 총 14문항이었다. 일상

행동에서의 세대차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신세대의 멋 내기에 대한 평가(3문항, $\alpha=.81$), 컴퓨터 사용정도(3문항, $\alpha=.70$), 통신기기 활용정도(2문항, $\alpha=.57$) 및 즐겨보는 TV프로그램(3문항)과, 즐겨듣는 음악(4문항)에 대해서도 질문하였다.

세대차 인식, 심리특성, 행동특성 영역을 구성하는 변인들에 대한 측정문항의 답지는 '전혀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제작하였다.

실시방법

표집대상 노인들의 대부분이 노안으로 인해 질문지를 읽고 직접 작성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고, 낮은 집중력으로 인해 집단으로 질문지 실시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조교들이 개별적으로 1명 또는 2명의 노인들에게 문항을 읽어주고 그들의 응답을 일일이 답지에 대신 기록하는 개인 면접방식으로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노인들은 중간에 응답을 포기하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연구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다과를 제공하고 협조를 구하였다. 아파트단지 내의 노인정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노인복지회관에 취미활동을 하러 나온 노인들이 표집되었으므로, 이들에 대한 개별 면접은 노인정이나 노인복지회관의 조용한 장소에서 실시되었다.

청소년집단인 초·중·고 대학생은 수업시간을 활용하여 수업담당 교사나 교수가 직접 질문지를 실시하였으며, 질문지 실시에 소요된 시간은 약 40분 정도였다. 각 표집대상 학생들로 하여금 성인용 질문지를 집에 갖고 가서 부와 모에게 각각 실시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응답자들의 성실한 응답과 협조를 구하기 위해, 연구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답례로 볼펜을 제공하였다.

표 2

세대집단별 성별 세대차 인식 차이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세대차 인식		변산원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세대차 지각	학습	주효과 세대집단(1)	2	39.91	62.24 ***
		성별(2)	1	3.47	5.42 *
	상호작용	(1) x (2)	2	1.52	2.38
생활	주효과	세대집단(1)	2	36.07	52.50 ***
		성별(2)	1	.00	.00
	상호작용	(1) x (2)	2	.54	.79
여가/기호	주효과	세대집단(1)	2	28.85	50.30 ***
		성별(2)	1	3.42	5.96 *
	상호작용	(1) x (2)	2	.39	.69
세대갈등	주효과	세대집단(1)	2	26.76	45.53 ***
		성별(2)	1	.20	.34
	상호작용	(1) x (2)	2	3.00	5.11 **

주. 아래의 모든 표에서 *는 $p < .05$, **는 $p < .01$, ***는 $p < .001$ 수준의 유의도를 의미함.

표 3

세대집단별 성별 세대차 인식의 평균과 표준편차

세대차 인식	집단	청소년 M (SD)	성인 M (SD)	노인 M (SD)	남자 M (SD)	여자 M (SD)	전체 M (SD)
세대차 지각							
학습		2.13 (.82) ^a	2.40 (.78) ^b	2.87 (.89) ^c	2.37 (.81)	2.28 (.83)	2.33 (.82)
생활		2.26 (.87) ^b	2.00 (.78) ^a	2.58 (1.04) ^c	2.13 (.84)	2.12 (.85)	2.12 (.84)
여가/기호		2.29 (.81) ^a	2.30 (.72) ^a	2.95 (.84) ^b	2.40 (.77)	2.26 (.77)	2.33 (.77)
세대갈등		2.01 (.87) ^b	1.78 (.69) ^a	2.30 (.85) ^c	1.87 (.75)	1.92 (.81)	1.89 (.78)

주. 아래의 모든 표에서 ^a ^b ^c는 Duncan 사후검증 결과, $p < .05$ 수준에서의 동질집단을 표시한 것임.

결 과

청소년, 성인, 노인집단별 세대차 인식

청소년, 성인, 노인집단의 세대차 지각 및 세대갈등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세대집단과 성별을 독립변인으로 이원변량분석하였다. 표 2에서 세대차 지각의 경우에, 세대집단과 성별간에 학습과 생활 및 여가/기호의 면에서 모두 상호작용효과는 없고, 세대집단별 주효과가 $p < .001$ 수준에서 있었다. 학습과 여가/기호의 면에서는 성별 주효과도 있었다. 표 3은 세대집단과 성별 세대차 인식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한 결과이다. 평균값을 기초로 Duncan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학습이나 생활 및 여가/기호의 모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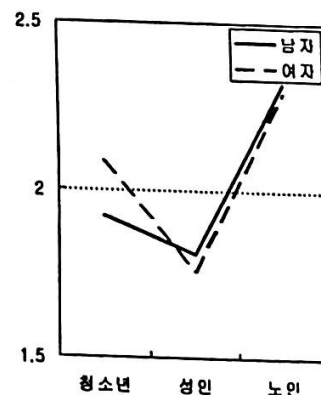


그림 2. 세대집단별x성별 세대갈등의 상호작용

면에서, 노인이 청소년이나 성인보다 가장 세대차이를 많이 지각하였다. 또한 남자가 여자보다 학업이나 여가/기호에서 세대차이를 약간 더 지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세대갈등의 경우는 세대집단과 성별간에 상호작용효과가 있었으며, 세대집단별 주효과($p<.001$)도 있었다(표 2 참고). 상호작용효과를 나타낸 그림 2를 보면, 청소년은 여자가 남자보다 세대갈등을 더 많이 지각하나, 성인과 노인은 남자가 약간 더 지각하지만 거의 성차가 없었다. 세대집단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비교하여 보면(표 3 참고), 노인이 세대갈등을 가장 많이 지각하고 그 다음으로 청소년 성인의 순서로 나타났다.

청소년, 성인, 노인 세대간의 심리적 특성 차이

청소년, 성인, 노인 세대간의 심리적 특성에서 차이를 성별과 함께 이원변량분석을 한 결과가 표 4이다. 생활목표의식의 하위변인인 사회봉사, 가정화목, 자아실현, 부귀영화에서 모두, 세대집단별 주효과는 의미있는 차이($p<.001$)가 있었다. 그러나 성별 주효과나, 세대집단별 성별 상호작용효과는 없었다. 표 5는 세대집단별 성별 심리특성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한 것이다. 생활목표의식의 전체집단 평균을 보면 가정화목이 가장 높고, 부귀영화가 가장 낮았다. 세대집단별로 비교하여 보면, 사회봉사에서는 노인의 평균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성인, 청소년의 순서이며, 자아실현에서는 청소년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노인 성인의 순서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노인은 일상생활에서 사회봉사와 관련된 목표를, 청소년은 자아실현과 관련된 목표를 더 많이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치관의 하위변인별로 살펴보면, 보수지향 가치관은 세대집단별 성별 상호작용효과 및 세대집단별 주효과가 $p<.001$ 수준에서 매우 의미있고, 성별도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표 4 참고). 상호작용효과를 그림으로 제시한 그림 3을 보면, 남자와 여자 모두 청소년에서 노인으로 됨에 따라 보수지향적인 가치가 증가하였으나, 여자가 이러한 증가의 폭이 더욱 컸다.

따라서 청소년은 남자가 더욱 보수지향적인 반면에, 성인은 성차가 없고, 노인은 여자가 더욱 보수적이다. 세대집단별 보수지향 가치관의 평균을 비교하여 보면(표 5 참고), 노인이 가장 보수지향적이며, 그 다음으로 성인, 청소년의 순서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보수지향적인 경향이 있었다.

진보지향 가치관은 세대집단과 성별의 상호작용은 없고, 각각의 주효과는 $p<.001$ 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다(표 4 참고). 청소년이 가장 진보지향 가치관이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노인, 성인의 순서였고,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욱 진보지향적이었다(표 5 참고).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 중에서 스트레스대처효능감과 어려움극복효능감의 경우에는 세대집단과 성별 상호작용효과 및 각각의 주효과가 모두 $p<.001$ 수준으로 매우 유의하였다. 관계효능감의 경우는 상호작용효과 및 세대집단의 주효과만 $p<.001$ 수준의 유의도를 보였으며, 사회성효능감과 자기주장효능감은 상호작용효과는 없고 세대집단 및 성별의 주효과만 유의하였다. 상호작용이 의미있게 나타난 세 하위변인에 대해 집단간 차이를 그림으로 제시한 것이 그림 4이다. 스트레스대처 효능감과 어려움극복 효능감의 경우에 청소년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효능감을 보이거나, 남자는 세 세대집단간에 거의 차이가 없는데 비해, 여자는 청소년에서 노인으로 됨에 따라 계속 효능감이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노인집단에서는 성차가 거의 없었다. 관계효능감도 마찬가지로 여자는 청소년에서 성인 노인으로 됨에 따라 점차 증가하나, 남자는 성인에서 오히려 하강하므로써, 청소년에서는 남자가 관계효능감이 높으나 성인과 노인에서는 성차가 없었다.

표 5에서 전체집단의 평균을 보면, 관계효능감이 가장 높고, 나머지는 비슷하다. 세대집단별로는 자기주장효능감만 성인이 가장 높고, 그 외에는 모두 노인이 가장 높았다. 청소년은 관계효능감을 제외한 모든 효능감에서 가장 낮은 값을 보였으며, 관계효능감의 경우도 사후검증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과 성인이 동질적인 것으로 확인되므로써, 결국 청소년은 다른

표 4

세대집단별 성별 심리특성 차이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심리특성		변산원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생활목표의식	사회봉사	주효과	세대집단(1)	2	26.20	50.11 ***
			성별(2)	1	.07	.13
		상호작용	(1) x (2)	2	.47	.90
	가정화목	주효과	세대집단(1)	2	27.65	69.62 ***
			성별(2)	1	.16	.41
		상호작용	(1) x (2)	2	.57	1.43
	자아실현	주효과	세대집단(1)	2	62.16	129.08 ***
			성별(2)	1	.00	.00
		상호작용	(1) x (2)	2	.32	.66
	부귀영화	주효과	세대집단(1)	2	12.02	17.09 ***
			성별(2)	1	1.29	1.84
		상호작용	(1) x (2)	2	.47	.68
가치관	보수지향	주효과	세대집단(1)	2	59.84	239.10 ***
			성별(2)	1	1.03	4.13 *
		상호작용	(1) x (2)	2	9.71	38.78 ***
	진보지향	주효과	세대집단(1)	2	32.24	117.30 ***
			성별(2)	1	5.05	18.37 ***
		상호작용	(1) x (2)	2	.77	2.81
자기효능감	사회성효능감	주효과	세대집단(1)	2	4.19	8.70 ***
			성별(2)	1	8.09	16.79 ***
		상호작용	(1) x (2)	2	.38	.80
	스트레스대처효능감	주효과	세대집단(1)	2	6.69	15.51 ***
			성별(2)	1	6.12	14.19 ***
		상호작용	(1) x (2)	2	4.08	9.47 ***
	관계효능감	주효과	세대집단(1)	2	3.37	8.90 ***
			성별(2)	1	.27	.71
		상호작용	(1) x (2)	2	3.61	9.53 ***
	어려움극복효능감	주효과	세대집단(1)	2	6.53	14.67 ***
			성별(2)	1	5.52	12.39 ***
		상호작용	(1) x (2)	2	3.69	8.29 ***
	자기주장효능감	주효과	세대집단(1)	2	2.91	6.43 **
			성별(2)	1	10.53	23.26 ***
		상호작용	(1) x (2)	2	.72	1.60
다른세대효능감평가	주효과	세대집단(1)	2	22.42	52.11 ***	
		성별(2)	1	.46	1.08	
	상호작용	(1) x (2)	2	.24	.55	
생활만족도	주효과	세대집단(1)	2	5.81	15.25 ***	
		성별(2)	1	5.38	14.14 ***	
	상호작용	(1) x (2)	2	3.36	8.83 ***	
부러워하는 대상	전문직	주효과	세대집단(1)	2	1.44	1.49
			성별(2)	1	8.11	8.41 **
		상호작용	(1) x (2)	2	1.46	1.51
	안정직	주효과	세대집단(1)	2	37.40	48.67 ***
			성별(2)	1	8.95	11.64 ***
		상호작용	(1) x (2)	2	1.01	1.32
	인기직	주효과	세대집단(1)	2	88.63	117.91 ***
			성별(2)	1	15.10	20.09 ***
		상호작용	(1) x (2)	2	3.48	4.63 **

표 5

세대집단별 성별 심리적 특성의 평균과 표준편차

심리특성	집단	청소년 M (SD)	성인 M (SD)	노인 M (SD)	남자 M (SD)	여자 M (SD)	전체 M (SD)
생활목표의식							
사회봉사		3.31 (.76) ^a	3.49 (.70) ^b	3.93 (.71) ^c	3.46 (.72)	3.44 (.75)	3.45 (.74)
가정화목		4.42 (.57) ^b	4.12 (.66) ^a	4.33 (.64) ^b	4.23 (.66)	4.24 (.63)	4.24 (.65)
자아실현		4.15 (.66) ^c	3.69 (.71) ^a	3.86 (.70) ^b	3.86 (.71)	3.87 (.74)	3.86 (.73)
부귀영화		3.13 (.88) ^b	2.94 (.81) ^a	3.09 (.92) ^b	3.03 (.87)	3.00 (.82)	3.02 (.84)
가치관							
보수지향		2.77 (.54) ^a	3.19 (.49) ^b	3.53 (.56) ^c	3.16 (.52)	2.97 (.59)	3.06 (.56)
진보지향		4.15 (.49) ^c	3.80 (.54) ^a	4.02 (.58) ^b	3.85 (.54)	4.01 (.56)	3.94 (.55)
자기효능감							
사회성효능감		2.90 (.74) ^a	3.02 (.67) ^b	3.07 (.68) ^b	3.07 (.69)	2.89 (.70)	2.98 (.70)
스트레스대처효능감		2.69 (.74) ^a	2.85 (.62) ^b	2.96 (.69) ^c	2.93 (.65)	2.69 (.68)	2.80 (.67)
관계효능감		3.44 (.64) ^a	3.39 (.60) ^a	3.60 (.66) ^b	3.44 (.63)	3.40 (.61)	3.42 (.62)
어려움극복효능감		3.00 (.73) ^a	3.16 (.64) ^b	3.24 (.68) ^b	3.21 (.65)	3.02 (.69)	3.11 (.68)
자기주장효능감		3.03 (.75) ^a	3.15 (.63) ^b	3.09 (.70) ^{ab}	3.21 (.66)	3.01 (.69)	3.10 (.68)
다른세대효능감평가		3.47 (.66) ^b	3.20 (.64) ^a	3.27 (.83) ^a	3.33 (.66)	3.28 (.67)	3.30 (.67)
생활만족도		3.19 (.70) ^a	3.11 (.58) ^a	3.32 (.59) ^b	3.23 (.62)	3.08 (.62)	3.15 (.63)
부러워하는 대상							
전문직		3.36 (1.07) ^a	3.32 (.94) ^a	3.27 (1.03) ^a	3.46 (.94)	3.21 (1.02)	3.33 (.99)
안정직		3.13 (.91) ^a	3.38 (.86) ^b	3.81 (.93) ^c	3.24 (.90)	3.38 (.89)	3.31 (.90)
인기직		2.56 (.94) ^c	2.06 (.83) ^a	2.30 (.99) ^b	2.39 (.92)	2.13 (.89)	2.25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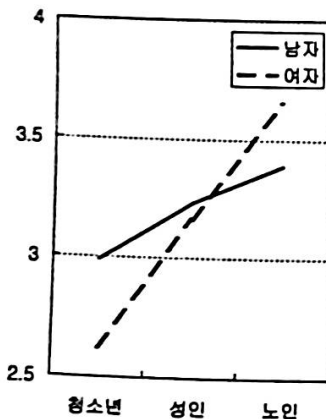


그림 3. 세대집단별x성별 가치관(보수지향)의 상호작용

세대에 비해 자기효능감이 가장 낮다고 할 수 있다.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자기효능감의 모든 하위변인이 높았다.

다른 세대에 대한 효능감 평가에 대한 분석결과, 세대집단별로 주효과($p < .001$)만 있었다(표 4 참고). 세대집단별 평균을 비교하여 보면(표 5 참고), 청소년이 가장 높으므로, 성인과 노인이 청소년의 효능감을 평가하는 것에 비해, 청소년이 성인의 효능감을 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생활만족도는 세대집단과 성별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 및 세대집단별 성별 주효과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표 4 참고). 그림 5는 세대집단별 성별 생활만족도의 상호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청소년 남자는 생활만족도가 높으나 성인 남자는 하강적 변화를 보였다가, 노인 남자는 다시 생활만족도가 청소년과 유사하게 상승하였다. 이에 비해 청소년 여자는 남자에 비해 생활만족도가 낮고 성인 여자도 청소년 여자와 유사하게 낮은 만족도를 보이나, 노인기에는 생활만족도가 증가하였다. 그러므로 청소년은 남자가 여자보다 생활만족도가 높으나, 성인과 노인은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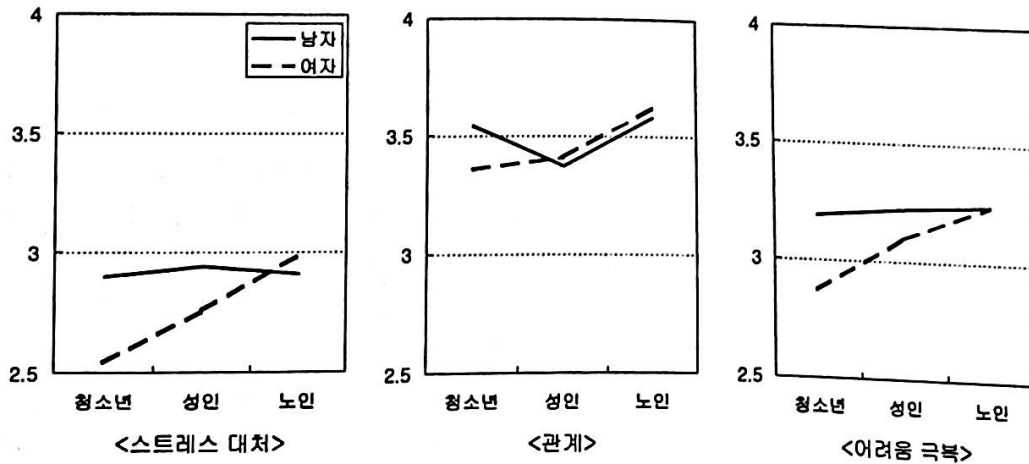


그림 4. 세대집단별x성별 자기효능감의 상호작용

차가 많이 줄어들었다. 세대집단별로는 노인이 청소년이나 성인보다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은 생활만족도를 보였다(표 5 참고).

부러워하는 대상의 경우는 하위변인별로 결과에 차이가 많았다. 전문직에 대해서는 성별로만 차이가 있었고, 안정직의 경우는 세대집단과 성별 주효과가 각각 있었으며, 인기직의 경우는 세대집단과 성별 주효과 및 상호작용이 모두 의미있게 나타났다(표 4 참고). 집단별 평균을 보면(표 5 참고), 남자가 여자보다 전문직을 부러워하는 정도가 높았다. 안정직에 대해 세대집단별로는 노인이 가장 부러워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성인, 청소년의 순서였다.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안정직을 선호하였다. 세대집단별 성별로 인기직을 부러워하는 정도의 상호작용효과를 그림으로 제시한 것이 그림 6이다.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됨에 따라 인기직을 부러워하는 정도가 현저하게 하강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남자나 여자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노인은 비록 청소년보다는 인기직을 부러워하는 정도가 낮지만 성인보다 높는데, 이러한 상승의 폭이 여자에게서 두드러지므로써, 결과적으로 노인은 성별에 따라 인기직을 부러워하는 정도에서 차이가 없었다. 세대집단별로 인기직을 부러워하는 정도에서의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표 5 참고), 청소년이 가장 인기직업을 부러워하고, 그 다음으로 노인, 성인의 순서를 나타내었다. 성별로는 남자가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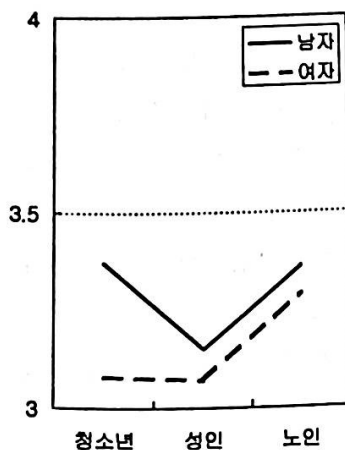


그림 5. 세대집단별x성별 생활만족도의 상호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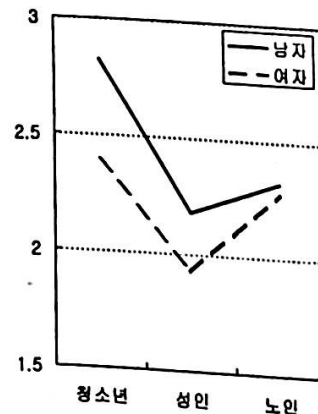


그림 6. 세대집단별x성별 부러워하는 대상(인기직)의 상호작용

자보다 인기직을 부러워하였다.

청소년, 성인, 노인 세대간의 행동적 특성 차이

세대집단별 성별 행동특성에서의 차이를 분석한 표 6에서, 세대갈등 대처양식의 하위변인 중에 자기 조절 회피 적극적해결은 모두 상호작용효과와 세대집단별 주효과에서 $p < .001$ 수준의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사회적 지원만 상호작용효과가 없고, 세대집단별 성별 주효과가 모두 의미 있었다.

상호작용효과를 보인 대처양식의 세 하위변인을 그림 7에 제시하였다. 자기조절대처의 경우에, 남자는 성인에서 약간 낮고 전반적으로 비슷하나, 여자는 청소년에서 노인으로 될수록 점차 증가하였다. 세대집단별 성별 상호작용을 보면, 청소년은 남자가 여자보다 자기조절대처를 더 많이 하나, 성인과 노인은 여자가 남자보다 자기조절대처를 많이 하였다. 회피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청소년에서 성인이 됨에 따라 감소하였다가 노인이 되면서 다시 증가하였다. 세대집단과 성별 상호작용을 보면, 청소년은 남자가 여자보다 더욱 회피하나, 성인은 성차가 없고, 노인은 여자가 회피양식을 많이 사용하였다. 적극적 해결 양식은 청소년에서 남자가 약간 더 높고, 성인은 이와 반대로 여자가 더 높으며, 노인에서는 성차가 없었다.

표 7에서 대처양식 하위변인의 전체 평균을 보면, 자기조절대처가 가장 높고, 회피가 가장 낮으므로써, 세대차와 관련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자기조절을 가장 많이 함을 알 수 있다. 세대집단별로는 노인일수록 세대갈등 대처양식으로서 자기조절을 많이 하고 동시에 갈등을 회피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원을 추구하는 정도가 높았다. 특별히 사회적 지원대처에서는 성차가 컸는데, 여자가 남자보다 사회적 지원을 더욱 많이 추구하였다.

역할행동의 하위변인인 전통지향과 진보지향 역할행동 모두, 세대집단별 성별 상호작용효과 및 각각의 주효과가 $p < .001$ 수준에서 있었다(표 6 참고). 상호작용효과를 제시한 그림 8을 보면, 남자와 여자 모두 청소년에서 성인 노인으로 됨에 따라 전통지향 역

할행동이 증가하였으나, 증가의 정도가 여자에서 더 높았다. 따라서 청소년과 성인은 남자가 여자보다 더욱 보수적인 역할행동을 하나, 이와 대조적으로 노인이 되면 여자가 더욱 보수적인 역할행동을 하였다. 진보지향 역할행동은 청소년의 경우에 여자가 남자보다 더욱 높으나, 성인과 노인은 성차가 약간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전반적으로는 청소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여자가 더욱 진보지향적 역할행동을 나타내었다.

하위집단별 평균을 비교하여 보면(표 7 참고), 노인이 가장 전통지향적 역할행동을 하고, 그 다음으로 성인 청소년의 순서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가 더욱 전통지향적인 역할행동을 하였다. 진보지향 역할행동은 청소년이나 노인이 성인보다 높았으며, 성별로는 여자가 더욱 진보적이었다.

일상행동으로서 TV프로그램 선호도에 있어, 쇼/가요/코메디/오락프로는 세대집단별 주효과, 연속극/드라마는 상호작용효과 및 두 독립변인 각각의 주효과가, 시사토론/뉴스는 두 변인의 주효과만 의미있게 나타났다(표 6 참고). 세대집단별 성별 일상행동의 상호작용을 그린 그림 9에서 연속극/드라마의 경우를 보면, 청소년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조금 더 높은 값을 보이나, 성인에서 남자는 현저하게 감소하므로써 성차가 더욱 커졌으며, 노인에서도 이러한 차이가 유지되었다. 세대집단별로 시청하는 TV프로그램에서 많은 차이가 있었는데,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쇼/가요/코메디/오락프로는 청소년이 가장 많이 보고 그 다음으로 노인 성인의 순서였으며, 연속극/드라마는 노인이 가장 많이 보고 그 다음으로 청소년 성인의 순서를 나타내었다. 시사토론/뉴스는 청소년이 성인이나 노인보다 적게 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선호하는 TV프로그램에서 성차도 확실히 나타났는데, 여자가 연속극/드라마를, 남자가 시사토론/뉴스를 훨씬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선호하는 음악에서는 트로트나 국악/민요에서 약간의 상호작용이 있었으며, 세대집단별로는 랩/힙합/메탈/록, 트로트, 국악/민요에서 $p < .001$ 수준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6 참고). 상호작용효과를 보면

표 6
세대집단별 성별 행동특성 차이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행동특성		변산원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세대갈등 대처양식	자기조절	주효과	세대집단(1)	2	5.84	9.34 ***
			성별(2)	1	.52	.83
		상호작용	(1) x (2)	2	8.34	13.35 ***
	회피	주효과	세대집단(1)	2	57.92	102.35 ***
			성별(2)	1	1.71	3.03
		상호작용	(1) x (2)	2	9.27	16.38 ***
	적극적해결	주효과	세대집단(1)	2	70.47	104.86 ***
			성별(2)	1	.86	1.27
		상호작용	(1) x (2)	2	6.63	9.87 ***
	사회적 지원	주효과	세대집단(1)	2	37.52	48.92 ***
			성별(2)	1	13.07	17.04 ***
		상호작용	(1) x (2)	2	.06	.08
역할행동	전통지향	주효과	세대집단(1)	2	47.63	134.35 ***
			성별(2)	1	3.99	11.27 ***
		상호작용	(1) x (2)	2	6.72	18.95 ***
	진보지향	주효과	세대집단(1)	2	13.93	42.59 ***
			성별(2)	1	7.76	23.71 ***
		상호작용	(1) x (2)	2	2.34	7.16 ***
일상행동	TV: 쇼, 가요, 코메디, 오락	주효과	세대집단(1)	2	450.05	404.15 ***
			성별(2)	1	2.40	2.16
		상호작용	(1) x (2)	2	.76	.69
	TV:연속극, 드라마	주효과	세대집단(1)	2	53.20	47.95 ***
			성별(2)	1	49.62	44.72 ***
		상호작용	(1) x (2)	2	8.95	8.07 ***
	TV: 시사토론, 뉴스	주효과	세대집단(1)	2	286.83	309.72 ***
			성별(2)	1	53.46	57.73 ***
		상호작용	(1) x (2)	2	.99	1.07
	음악: 랩, 힙합, 메탈, 록	주효과	세대집단(1)	2	1359.44	1174.12 ***
			성별(2)	1	.01	.01
		상호작용	(1) x (2)	2	2.06	1.78
	음악: 트로트	주효과	세대집단(1)	2	796.55	718.81 ***
			성별(2)	1	1.75	1.58
		상호작용	(1) x (2)	2	4.79	4.33 *
	음악: 클래식	주효과	세대집단(1)	2	6.27	4.71 **
			성별(2)	1	6.72	5.05 *
		상호작용	(1) x (2)	2	1.73	1.30
	음악: 국악, 민요	주효과	세대집단(1)	2	335.82	314.21 ***
			성별(2)	1	2.46	2.30
		상호작용	(1) x (2)	2	5.58	5.22 **
	신세대 멋내기에 대한 평가	주효과	세대집단(1)	2	363.83	490.85 ***
			성별(2)	1	15.19	20.49 ***
		상호작용	(1) x (2)	2	5.15	6.95 ***
	컴퓨터 사용 정도	주효과	세대집단(1)	2	485.97	683.53 ***
			성별(2)	1	32.46	45.59 ***
		상호작용	(1) x (2)	2	3.28	4.60 **
	통신기기 활용정도	주효과	세대집단(1)	2	34.24	28.93 ***
			성별(2)	1	2.64	2.23
		상호작용	(1) x (2)	2	31.88	26.94 ***

표 7.

세대집단별 성별 행동특성의 평균과 표준편차

행동특성	집단	청소년 M (SD)	성인 M (SD)	노인 M (SD)	남자 M (SD)	여자 M (SD)	전체 M (SD)
세대갈등 대처양식							
자기조절		3.15 (.81) ^a	3.21 (.78) ^a	3.49 (.87) ^b	3.21 (.78)	3.21 (.81)	3.21 (.80)
회피		2.35 (.77) ^b	2.00 (.73) ^a	2.67 (.99) ^c	2.19 (.81)	2.14 (.76)	2.16 (.78)
적극적 해결		2.52 (.85) ^a	3.02 (.80) ^b	3.07 (.87) ^b	2.89 (.83)	2.81 (.88)	2.84 (.86)
사회적 지원추구		2.64 (.93) ^b	2.50 (.84) ^a	3.27 (.96) ^c	2.47 (.89)	2.70 (.89)	2.59 (.90)
역할행동							
전통지향		2.63 (.66) ^a	2.96 (.56) ^b	3.44 (.81) ^c	3.02 (.59)	2.74 (.66)	2.87 (.65)
진보지향		3.37 (.65) ^b	3.13 (.53) ^a	3.31 (.61) ^b	3.11 (.56)	3.32 (.61)	3.22 (.59)
일상행동							
TV: 쇼, 가요, 코메디, 오락		3.84 (1.17) ^c	2.61 (.96) ^a	3.18 (1.23) ^b	2.99 (1.21)	3.15 (1.20)	3.08 (1.20)
TV: 연속극, 드라마		3.46 (1.13) ^b	3.07 (1.05) ^a	3.68 (1.15) ^c	2.97 (1.11)	3.48 (1.04)	3.24 (1.10)
TV: 시사토론, 뉴스		2.72 (1.03) ^a	3.72 (.95) ^b	3.84 (1.15) ^b	3.68 (1.07)	3.10 (1.07)	3.37 (1.10)
음악: 랩, 힙합, 메탈, 록		3.67 (1.36) ^b	1.58 (.88) ^a	1.48 (.90) ^a	2.22 (1.46)	2.41 (1.48)	2.32 (1.47)
음악: 트로트		1.57 (.90) ^a	3.15 (1.13) ^b	3.62 (1.25) ^c	2.81 (1.29)	2.44 (1.32)	2.61 (1.32)
음악: 클래식		2.51 (1.23) ^b	2.41 (1.10) ^{ab}	2.24 (1.23) ^a	2.39 (1.16)	2.48 (1.15)	2.44 (1.16)
음악: 국악, 민요		1.55 (.89) ^a	2.38 (1.11) ^b	3.49 (1.21) ^c	2.29 (1.19)	2.01 (1.12)	2.14 (1.16)
신세대 멋내기에 대한 평가		2.82 (1.08) ^b	1.68 (.74) ^a	1.67 (.84) ^a	1.86 (.94)	2.28 (1.07)	2.08 (1.03)
컴퓨터 사용 정도		2.82 (.99) ^c	1.62 (.80) ^b	1.43 (.71) ^a	2.18 (1.09)	1.91 (.99)	2.04 (1.05)
통신기기 활용 정도		2.27 (1.25) ^b	1.91 (1.00) ^a	1.74 (1.04) ^a	2.05 (1.07)	2.01 (1.15)	2.03 (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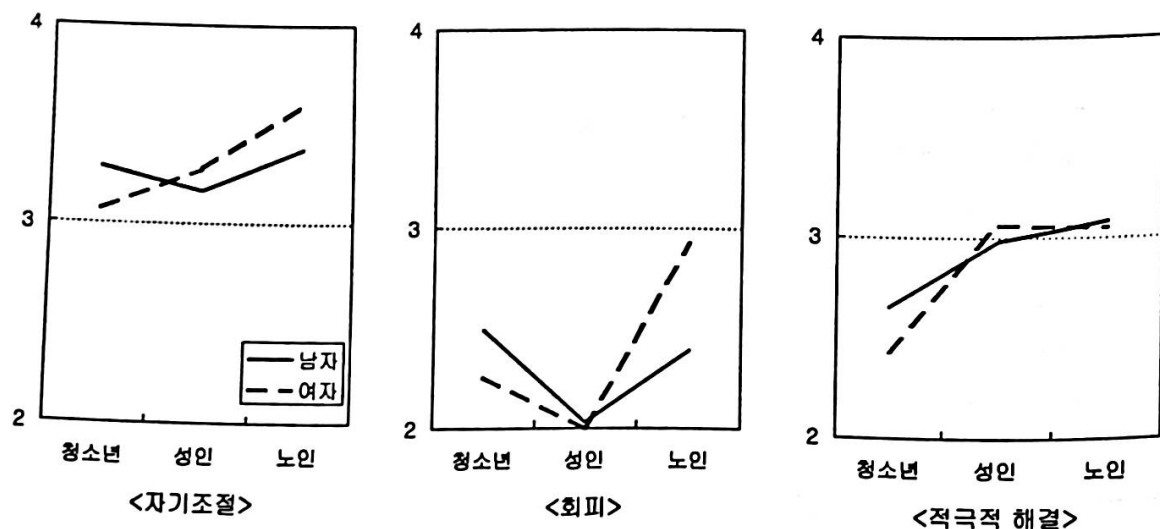


그림 7. 세대집단별x성별 세대갈등 대처양식의 상호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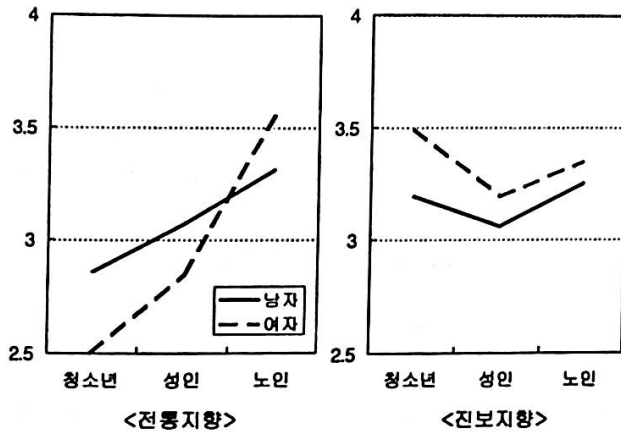


그림 8. 세대집단별x성별 역할행동의 상호작용

(그림 9 참고), 트로트의 경우에 청소년과 성인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선호도가 높으나, 노인은 오히려 여자가 더욱 선호하였다. 국악이나 민요도 이와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랩/힙합/메탈/록은 청소년이 성인이나 노인보다 매우 선호하였고, 이와 반대로 트로트는 성인이나 노인이 청소년보다 훨씬 선호하므로써, 국악/민요는 노인, 성인, 청소년의 순서로 나타났다(표 7 참고).

신세대의 멋내기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상호작용 효과($p<.001$)가 있었으며, 세대집단별 성별로도 각각 주효과($p<.001$)가 있었다(표 6 참고). 상호작용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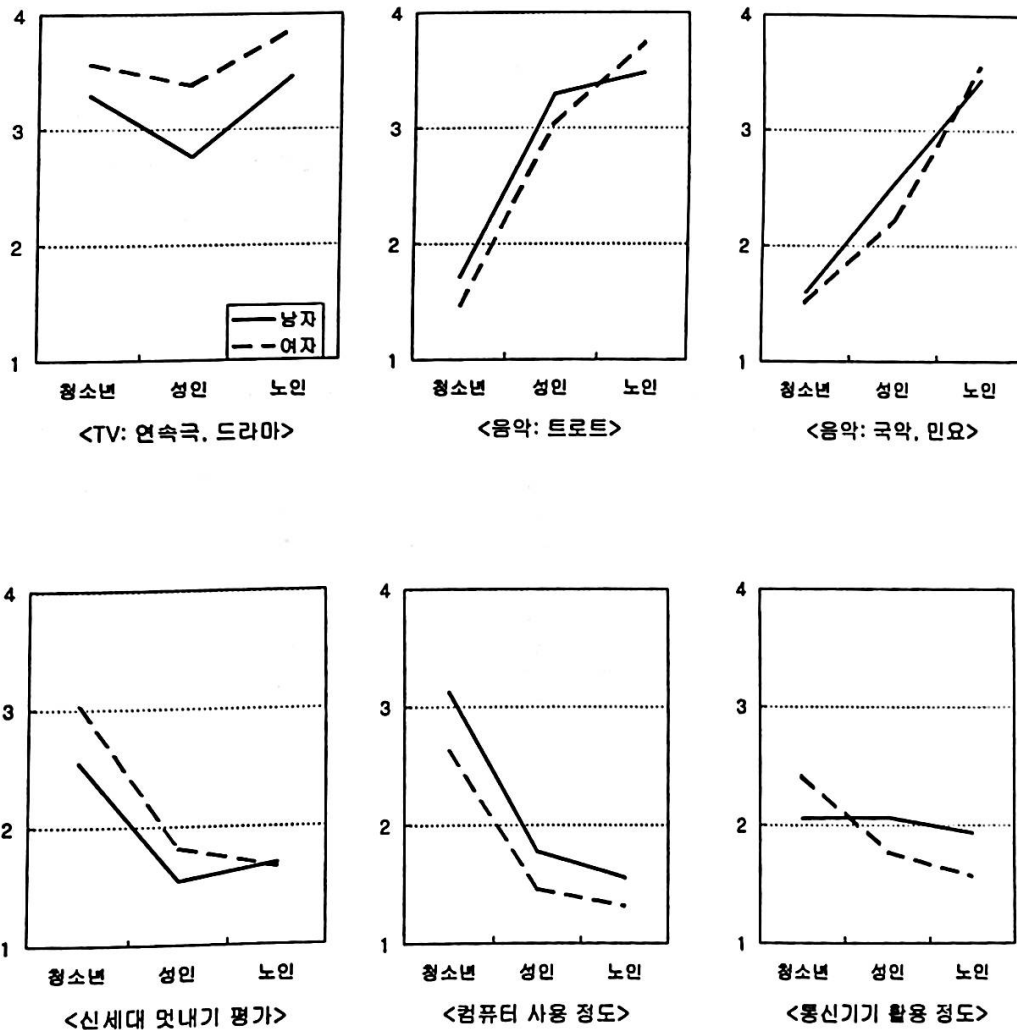


그림 9. 세대집단별x성별 일상행동의 상호작용

보면, 그림 9의 신세대의 멋내기에 대한 평가에서 청소년과 성인은 여자가 더욱 긍정적이나 노인은 성차가 없었다. 표 7을 보면 청소년이 성인이나 노인보다, 여자가 남자보다, 신세대의 멋내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컴퓨터 사용 정도에서도 신세대의 멋내기에 대한 평가에서와 마찬가지로 상호작용효과 및 주효과가 나타났다(표 6 참고). 그림 9를 보면, 상호작용의 정도는 크지 않았다. 표 7에서 집단별 평균을 비교하여 보면, 청소년이 컴퓨터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으로 성인 노인의 순서를 나타내며,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였다.

표 6에 제시된 바처럼 통신기기의 활용 정도에 있어서는 상호작용효과와 세대집단별 주효과가 각각 $p < .001$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 세대집단별 성별 상호작용효과를 보면(그림 9 참고), 남자는 청소년에서 노인까지 변화가 거의 없으나, 청소년 여자는 많이 사용하나 성인 여자는 훨씬 적게 사용하며, 노인은 더욱 사용정도가 낮았다. 결과적으로 청소년은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성

인과 노인은 남자가 여자보다 통신기기를 더 많이 사용하는 차이를 보였다.

청소년, 성인, 노인집단별로 세대차 인식과 심리특성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단계적 중다회귀 분석한 결과가 표 8이다. 투입변인으로는 세대차 인식과 관련하여 세대차 지각, 세대갈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심리특성 변인으로는 생활목표의식 하위변인 4개, 가치관 하위변인 2개, 자기효능감 하위변인 5개, 다른 세대 효능감 평가, 부러워하는 대상 하위변인 3개로 하였다. 배경정보와 관련하여서는 연령, 가정형태(대가족/핵가족), 가정의 사회경제적지위를 포함하였다. 특별히 청소년의 경우에만 학업성취 변인을 추가하였다.

표 8을 보면 청소년의 경우에 관계효능감의 설명변량이 2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어려움극복 효능감의 β 값이 크며, 가정의 사회경제적지위 순서를 보인다. 그 다음으로 세대갈등과 연령이 포함되고 있으나 β 값이 부적의 방향을 나타낸다. 이외에도 보수지향가치관과 학업성취가 의미있는 변인으로 투입되었다. 따라서 청소년의 경우에 관계효능감이 생활

표 8
세대차 인식과 심리특성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집단	독립변인	MR	R ²	β
청소년	효능감: 관계	.50	.25	.30 ***
	SES	.53	.28	.14 ***
	효능감: 어려움 극복	.56	.32	.20 ***
	연령	.58	.33	-.11 ***
	세대갈등	.59	.35	-.12 **
	가치관: 보수지향	.59	.35	.08 *
	학업성취	.60	.36	.07 *
성인	효능감: 어려움 극복	.51	.26	.18 ***
	SES	.55	.30	.19 ***
	효능감: 관계	.58	.34	.17 ***
	효능감: 자기주장	.60	.36	.15 ***
	생활목표의식: 자아실현	.62	.38	.12 ***
	다른세대효능감평가	.62	.39	.12 ***
	부러워하는 대상: 인기직	.63	.39	.06 *
노인	효능감: 관계	.58	.33	.44 ***
	가정형태	.62	.39	-.24 **
	가치관: 진보지향	.66	.44	.21 **
	효능감: 사회성	.68	.46	.19 *
	SES	.70	.48	.16 *

만족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이외에도 어려움극복효능감이 높을수록, 사회경제적지위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 그러나 부모와 세대간 갈등이 적을수록, 연령이 적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가치관의 면에서는 보수지향적일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성인의 경우는 사회경제적지위의 β 값이 가장 크며, 어려움극복효능감과 관계효능감 및 자기주장효능감도 거의 이와 비슷한 값을 보인다. 이외에도 자아실현 생활목표의식과 다른 세대 효능감 평가 및 부러워하는 대상으로서 인기직이 의미있는 변인으로 포함되었다. 그러므로 성인은 사회경제적지위가 높고 어려움극복이나 관계 및 자기주장에 관련된 효능감이 높으며, 자아실현과 관련된 생활목표의식을 갖고, 자녀의 효능감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인기직을 부러워하는 경향이 높은 사람일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노인집단을 대상으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한 결과는 관계효능감의 β 가 .44이고 설명변량이 33%로 매우 높다. 그 다음으로 가정형태가 부적인 방향을 나타나고 있고, 이외에 진보지향가치관, 사회성효능감, 사회경제적지위의 순서로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결정하는데 있어 관계효능감이 매우 중요하며, 핵가족보다는 대가족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이 더욱 만족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보수적이기보다 진보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노인들이, 사회성효능감이 높을수록, 가정의 사회경제적지위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더욱 높은 경향을 보인다.

논 의

청소년, 성인, 노인의 세대차이에서 성별 상호작용

이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들 중에 특별히 흥미를 끄는 것은, 세대집단별 성별 상호작용효과이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분석하므로써, 세대차이에 관한 보다

정교한 해석이 가능하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많은 상호작용 중에서, 현저하게 드러나고 있는 현상 몇가지를 정리해 보기로 한다.

먼저, 생활만족도에서 세대집단별 성별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다. 즉 청소년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생활만족도가 높고, 성인과 노인은 그 차이가 근소하다. 이러한 결과는 여자들의 경우에 청소년과 성인이 생활만족도에서 차이가 없는데 비해, 남자는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됨에 따라 생활만족도가 감소하는 것과 관련된다. 성인 여자는 청소년 여자와 생활만족도에 차이가 없는데, 성인 남자는 청소년 남자보다 생활만족도가 낮은 사실은, 성인 남자가 직장생활에서 받는 압력이나 가정적인 책임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으로서의 성인 남자는 가정에 대한 경제적인 책임과 특히 자녀들이 상급학교로 진학하게 됨에 따라 겪게 되는 교육비 부담, 직장에서 적절한 시기에 승진되고, 경쟁사회에서 생존해야 하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생활만족도가 낮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로는,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대처양식이 세대집단과 성별에 따라 상호작용한다는 점이다. 이 연구에서는 세대차이로 인한 갈등이 생겼을 때의 해결 방식을 질문하므로써, 세대갈등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대처양식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노인이 가장 자기조절대처를 많이 하고 그 다음으로 성인이며 청소년이 가장 자기조절대처를 적게 하나, 이러한 세대집단별 차이는 여자들에게서 현저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며, 결과적으로 청소년기에는 남자가 여자보다 자기조절대처를 많이 하지만, 성인과 노인은 여자가 남자보다 자기조절대처를 많이 한다는 차이가 있다. 회피양식의 경우도 노인이 가장 높은 값을 보이고, 그 다음으로 청소년, 성인의 순서를 나타내는데, 여기에서 노인의 높은 회피대처는 여자들의 경향과 관련된 것이다. 청소년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욱 회피대처를 많이 하지만, 이와 반대로 노인은 여자가 남자보다 회피대처를 많이 하였다. 적극적 해결대처는 노인과 성인이 청소년보다 많이 하는데, 청소년에서는 남자가, 성인은 여자가 적극적 해결대

치를 더 많이 하는 경향을 보인다.

여자가 남자보다 성인이나 노인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기조절대처를 많이 하고, 특히 노인에서는 회피대처를 많이 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여자들이 상대적으로 문제나 갈등상황을 피하고 스스로 참고 인내하는 방식을 점차 많이 채택해 나감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여자들이 50대 이후에 운명귀인이나 운귀인을 많이(박영신, 김의철, 1999b) 하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문제나 갈등의 원인을 운명과 같은 외적인 요인에 두므로써 문제를 피하고, 결과적으로 환경을 변화시키기 보다는 스스로 참고 인내하는 자기조절의 방식을 채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세대집단별 자기효능감의 차이가 성별에 따라 다르다. 이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여자는 스트레스대처효능감이나 어려움극복효능감 및 관계효능감이 청소년에서 성인 노인으로 될 수록 증가하는 반면에, 남자는 세대집단별로 큰 차이가 없고, 관계효능감의 경우는 오히려 성인에서 낮아지고 있다. 따라서 스트레스대처효능감과 어려움극복효능감의 경우에, 청소년은 남자가 여자보다 효능감이 높지만, 성인에서는 성차가 줄어들어 노인집단에서는 성차가 없다. 관계효능감은 오히려 성인에서부터 여자가 조금 더 높다.

그러므로 김명언 등(2000)의 연구에서 성인이 청소년보다 효능감이 높게 나온 결과는, 여자들의 경우에 적용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별히 여자들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자기효능감의 영역들은 공통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나 어려움에 대한 극복 및 인간관계와 관련된 효능감들에서 여자들의 효능감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다는 사실이다.

넷째, 청소년에서 성인 노인으로 됨에 따라 보수적인 경향이 증가되지만, 남자는 그 증가의 폭이 상대적으로 적고, 여자는 현격히 증가하는 차이가 있다. 결과적으로 청소년기에는 남자가 여자보다 보수적이지만, 성인에서는 그 차이가 줄어들고, 노인이 되면 오히려 여자가 더욱 보수적이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론은 이 연구에서 세대집단별 성별 보수지향 가치

관의 상호작용 및, 전통지향 역할행동의 상호작용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결과에 기초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 보수지향 가치관을 측정하는 문항으로서 '부부 사이가 나빠도 자식을 생각해서 이혼을 하면 안된다' '대를 잇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들이 있어야 한다' '내 개인이 희생되더라도 가족이 중요하다'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전통지향 역할행동을 측정하는 문항으로는 '내가 부모라면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다' '내가 남편이라면 여자가 하는 부엌일을 하지 않는다' '내가 아내라면 직업을 갖기보다 가정에서 자녀양육에 전념한다'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보수지향적이고 전통지향적인 가치관과 역할행동의 측면에서, 연령이 많은 노인이 젊은 청소년보다 더욱 보수적이라는 사실은 일반적인 선입견과 일치한다. 그런데 남자가 보수적으로 변화하는 정도보다 여자가 보수적으로 변화하는 정도가 훨씬 현저하다는 이 연구의 결과가 특별히 관심을 끈다. 여자가 남자보다 연령증가에 따라 더욱 보수적으로 변화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은, 이 연구의 자료에 기초한 해석의 범위를 벗어난다. 그러나 세대집단과 성별의 이러한 상호작용 현상은 가치관 및 역할행동에 대한 분석을 통해 명확히 밝혀지고 있다.

다섯째, 세대갈등의 지각정도에 있어서도 세대집단과 성별은 상호작용한다. 세대차로 인한 갈등은 노인이 가장 많이 느끼고, 그 다음으로 청소년이며, 성인이 가장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청소년의 경우에 여자가 남자보다 세대갈등의 문제가 더 많다.

마지막으로, 일상행동에서 특히 통신기기의 활용 정도나 트로트와 같은 음악의 선호도에 있어서, 세대집단과 성별은 상호작용을 나타낸다. 핸드폰이나 삐삐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정도에 있어 청소년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높지만, 이와 반대로 성인과 노인은 남자가 여자보다 더욱 통신기기를 많이 사용한다. 또한 트로트 종류의 음악 선호도에 있어서는 청소년과 성인의 경우는 남자가 더욱 선호하나, 노인에서는 여자가 선호도가 더 높은 차이가 있다.

청소년, 성인, 노인의 세대차이와 유사성

청소년, 성인, 노인은 세대차 인식에 있어서나 심리 행동특성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점을 정리해 보고 이러한 결과가 갖는 시사점들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대차 인식의 면에서, 청소년과 성인 및 노인집단은 차이가 있었다. 즉 노인집단이 여가나 기호, 학업, 생활의 면 모두에서 성인이나 청소년들보다 가장 세대차이를 많이 지각하였고, 동시에 세대차이로 인한 문제나 갈등을 가장 많이 지각하였다.

노인들이 세대차이와 이러한 차이로 인한 갈등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은, 한국 사회가 지난 100년 동안 엄청난 변화를 거처온 것과 무관하지 않다. '현대 한국사회의 변동과 세대집단별 경험의 차이'(김명언, 김의철, 박영신, 2000; 그림 1 참고)를 정리한 결과에 제시한 바처럼, 현재 일제 식민지시대에 태어나 농경 시대에 성장한 약 65세 정도의 노인들과, 첨단 정보화사회에서 생활하는 N세대로서의 10대 청소년들은 삶의 환경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삶의 역사와 차이를 고려해 볼 때, 현재의 노인들이 현재의 청소년들에 대해 세대차를 경험하고 이로 인한 갈등을 경험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 연구의 그림 1에 밝힌 바와 같이, 현재의 노인은 자기의 청소년시절을 회고하고 이에 기초하여 현재의 청소년을 바라보기 때문이며, 이러한 자기의 과거 경험으로부터 무관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둘째, 여러 가지 심리적 특성에서도 청소년과 성인 노인은 차이가 있었다. 먼저 생활목표의식에서의 차이를 보면 노인은 청소년이나 성인보다 사회봉사와 관련된 생활목표의식이 높고, 청소년은 자아실현과 관련된 목표의식이 높았다. 가치관에서도 노인은 보수지향 가치가, 청소년은 진보지향 가치가 가장 높았다. 관계효능감이나 스트레스대처효능감은 노인이 가장 높았으며, 사회성효능감이나 어려움극복효능감은 청소년보다 노인이나 성인이 높고, 자기주장효능감은 성인이 노인이나 청소년보다 높았다. 성인이나 노인이 청소년의 효능감을 평가하는 정도보다, 청소년이

성인의 효능감을 평가하는 정도가 높았다. 생활만족도는 노인이 가장 높았고, 청소년과 성인은 동일한 수준이었다. 또한 안정된 직업에 대해서는 노인이 가장 선호하였고 그 다음으로 성인 청소년의 순서였으며, 인기직은 청소년이 가장 부러워하였다.

세대간의 심리적인 차이 중에서 특별히 관심을 끄는 사실은, 청소년과 성인은 생활만족도에서 차이가 없는데, 노인은 이 두 집단보다 만족도가 높다는 점이다. 노인은 배우자의 사망이나 신체적으로 건강이 쇠약해지고 사회적으로 은퇴하며 경제적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등의 변화로 인해 생활만족도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여건에 처하기 쉽지만, 오히려 자녀양육과 같은 가정적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자기가 원하는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되는 등의 긍정적인 면도 있다. 반면에 청소년들은 발달단계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체험하는 시기이며, 현실적으로 진학 및 진로문제 등으로 압력이 받는다. 특히 성인의 경우는 가정에 대한 책임이나 직장에서의 성취 등의 문제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면들은 청소년이나 성인으로 하여금 노인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생활만족도를 갖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론적인 설명 외에도,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설명의 단서를 찾아볼 수 있다. 즉 노인의 높은 생활만족도는 청소년이나 성인에 비해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실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박영신, 김의철, 김영희, 및 민병기(1999),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권혁호, 이상미, 및 양계민(예정)이 LISREL 분석을 한 결과에 의하면,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았으며 직접 효과가 있었다. 또한 김의철, 박영신, 및 박금주(1998)의 연구에서 생활만족도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변인은 관계효능감인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그런데 이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노인이 청소년이나 성인보다 관계효능감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노인의 높은 관계효능감은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노인이 신체적으로 쇠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은퇴하고 경제적으로 수입이 감소되는 처지에서도 생활에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인간관계를 성공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자기의 능력에 대한 신념과, 실제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기술들을 갖고 있는 것에 상당 부분 기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의 우울증을 예방하고 노년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관계효능감의 향상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노인이 상대적으로 높은 자기효능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 이 연구의 결과는, 노후가 되어도 개인적 통제력이나 자기효능감에 별다른 쇠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한, Baltes와 Baltes(1990)의 지적과 일치한다. 이와 같이 노인이 자기효능감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노인들이 자기의 낮은 능력수준과 비슷한 상황의 노인을 사회적 비교의 대상으로 하는 준거집단의 수정을 통해서, 요구수준이나 인생의 목표수준을 비교적 쉽게 도달할 수 있도록 수정하므로써, 또한 과거 현재 미래의 자기 이미지에 대한 중다적 자아를 갖고 상황에 따라 효과적으로 적응하므로써 가능하다. Bandura(1997)도 능력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이 높은 효능감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제시하였다. 그동안 많은 선행연구들(서병숙, 이현, 1995; 이신숙, 1997)에서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사회적 지원에 영향을 받을 밝히고 있는데, 이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노인의 경우에도 자기효능감이 사회적 지원과 생활만족도의 관계에 매개변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셋째, 청소년과 성인 노인은 다양한 행동특성에서 차이가 있었다. 세대갈등으로 인한 대처양식에서 노인은 청소년이나 성인에 비해 사회적 지원 대처를 많이 하였으며, 이외에도 자기조절대처 및 회피대처를 많이 하였다. 또한 노인이 가장 전통지향 역할행동을 많이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성인 청소년의 순서를 나타내었다. 진보지향 역할행동은 성인이 청소년이나 노인보다 적게 하였다. 일상행동에서도 세 집단은 매우 차이가 있어, 청소년은 성인이나 노인보다 신세대의 멋내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컴퓨터나 통신기기

도 많이 사용하였다. TV프로그램 선호도에 있어서 쇼나 오락프로는 청소년이 가장 선호하였으며, 시사토론이나 뉴스는 노인이나 성인이 청소년보다 선호하였다. 선호하는 음악에 있어서는 랩이나 힙합 등을 청소년이 가장 선호하고, 이와 반대로 노인은 트로트나 국악 민요를 가장 선호하였다. 이진우(미간행 논문)는 20세기말 한국의 청소년 문화의 특성 중 하나로 힙합문화를 들고 있으며, 대중가요 속에 나타나는 세대갈등 문제를 분석하면서 서태지와 아이들의 등장과 함께 랩음악이 청소년에게 미친 영향이 지대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예술이나 문화와 관련된 세대차에 대한 논의는, 음악의 선호도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영화 분야(유호식, 미간행 논문)에서도 시도되고 있다.

세대집단별로 나타난 행동적 특성의 차이들 중에서, 역할행동 및 세대갈등 대처양식에서의 세대차이에 대해 주목하게 된다. 먼저 역할행동에서의 세대차이를 보면, 전통지향 역할행동은 청소년이 가장 낮고 성인이 중간이며 노인이 가장 높으므로써 직선형 관계를 나타낸다. 반면에 진보지향 역할행동은 청소년과 노인이 동일한 수준을 보이고, 성인이 낮은 값을 보이므로써, 곡선형 관계를 나타내는 차이가 있다. 역할행동에서의 이러한 두가지 관계 형태는 세대집단별 가치관의 차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보수지향 가치관에서는 청소년이 가장 낮고, 그 다음으로 성인이며, 노인이 가장 높은 값을 보이므로써, 직선형 관계 형태를 보인다. 반면에 진보지향 가치관에서는 성인 가장 낮고, 그 다음으로 노인, 청소년의 순서로서 곡선형 관계 형태를 나타낸다. 이러한 역할행동과 가치관에서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연령이 증가하면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경향이 점차 증가하며, 반면에 진보지향적인 경향은 청소년기에 높았다가 성인이 되면 감소하지만 노인으로 되면서 점차 증가하는 변화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이 세대집단별로 보수지향과 진보지향 가치관 각각이 직선적 관계와 곡선적 관계를 동시에 나타내는 것은, 보수지향과 진보지향이 동일차원의 양 극단을 나타내는 동일 변인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변인임을 시사한다.

청소년들이 보수지향성은 낮고 진보지향성은 높은 경향은, 노인에 대한 부양의식(이시형, 이재연, 정선아, 정현희, 1999)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노인부양의 책임을 질문하였을 때, 자녀에게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56.6%로 가장 많았으나, 노인 본인의 책임을 강조한 청소년도 31.3%나 되었다. 부모 부양에 대해 어느 자녀에게 가장 책임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장남이 책임있다는 반응은 4.5%에 불과하였으며, 모든 아들의 책임이라는 반응이 7.9%였고, 모든 자녀가 함께 책임있다는 반응이 50.5%나 되었다. 반면에 40-59세 중년층을 대상으로 같이 살고 싶은 자녀가 누구인지 질문(김두섭, 박영숙, 이세용, 1999)하였을 때, 장남이 82.8%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세대가 청소년보다 더욱 보수지향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대갈등 대처양식에서 노인이 성인이나 청소년보다 현저하게 사회적 지원대처를 많이 한다는 사실은, 노인들의 높은 생활만족도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고 건강하다는 사실은 그동안 선행연구들(House, Landis, & Umberson, 1988; Triandis, Bontempo, Villareal, Asai, & Lucca, 1988)에서 확인되어 온 사실이다. 노인들이 비록 세대차이를 많이 느끼고 이러한 세대차이로 인한 갈등을 세 집단 중에 가장 많이 느끼지만, 세대갈등에 대한 대처방식으로 청소년이나 성인보다 사회적 지원을 추구하는 방식을 가장 많이 활용하므로써, 실제로 사회적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사회적 지원은 생활만족도의 향상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박영신, 김의철, 김영희, 및 민병기(1998), 박영신 등(예정)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원은 생활만족도에 대해 직접효과가 있었다.

청소년, 성인, 노인세대의 차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세 집단간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분석한 김명언 등(200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첫째, 대처양식으로서 자기조절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즉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세대갈등에 대한 대처양식으

로 꼭 참고 속으로 삭힌다든가 자기의 기분을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등 자기조절적인 방식을 다른 대처방식보다도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이러한 자기조절의 중요성은 스트레스(김의철, 박영신, 1997; 김의철, 박영신, 1999; 박영신, 김의철, 2000), 성취(김의철, 박영신, 1998; 박영신, 김의철, 1999a), 안전의식(박영신, 박동현, 김의철, 1998)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김명언(1997)이 가족으로부터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반응행동을 분석한 결과도, 가족들에게 시정을 요구한다든가,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을 건성으로 한다든가, 그럴 듯한 핑계를 대고 늦게 귀가하기 보다는, 더 노력하거나 그냥 참고 지낸다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즉 가구주나 배우자 및 자녀들이 가정에서의 불공정한 대우에 대해 참는 것과 같은 자기조절적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성공을 위해 타고난 재능, 본인의 노력, 배경이나 연줄, 연륜, 운수나 팔자 중에서 어느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을 하였을 때, 40대 미만(64.3%)이든 40대 이상(70.1%)이든 모두 본인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일치된 반응을 보였다(한국사회학회, 1990).

두 번째로 청소년, 성인, 노인세대 모두 가정화목이 자아실현이나 사회봉사 및 부귀영화와 관련된 생활목표보다 가장 높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와 같이 세대집단에 관계없이 한국 사람들이 가정에서 화목한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선행연구 결과들과도 일치한다. 김명언(1997)이 심리적 애착을 가정에서 맡고 있는 역할에 대한 만족도, 다시 태어날 경우 현재 가족의 재선택 여부, 가족에 대한 긍지, 다른 가족원과의 가치관 유사성, 가족 일에 대한 관심도의 다섯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한국 사람들은 자기의 가족에 대해 심리적 애착을 갖고 있었다. 김경신(1998)도 청소년 중년 노년세대 모두 가족가치관에 관하여 어느 정도 전통성을 유지하고 있어,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 가족의 중요성이나 결혼의 필요성이 강조된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한국 청소년의 가치관을 분석한 박광배와 김미숙(1992)의 연구에서도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체계가 시대변화에 따라

바뀌어도 한국 사회문화의 근간이 되는 집단주의적 가족문화는 쉽게 붕괴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윤진(1995)도 한국 노인의 일생과 삶의 질을 논의할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야 할 측면은 가족관계라고 지적하였다.

셋째, 청소년과 성인 노인 모두 관계효능감이, 사회성효능감 스트레스대처효능감 어려움극복효능감 자기주장효능감보다 가장 높았다. Kahn(1979)은 성공한 동아시아의 국가들이 대인관계나 가정 사회적인 의무를 완수하는 것과 관련된 관계적인 가치를 강조한다고 지적하였다(Yu & Yang, 1994). 김의철, 박영신, 및 박금주(1998)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한국 청소년의 생활만족도를 결정하는데 있어 관계효능감이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이 관계효능감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사실은 만족스러운 생활이 성공적인 인간관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한국이 집단주의 사회(Hofstede, 1991)이며, 한국인들이 의미있는 인간관계 즉 내집단의 형성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넷째, 청소년과 성인 및 노인집단 모두 보수지향적이기 보다는 진보지향 가치관이 더 강하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세 집단 중에서 노인이 가장 보수지향적인데, 그러한 노인집단에서도 보수지향보다는 진보지향적 가치가 더 강하다는 점에 주목하게 된다. 이는 한국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사람들의 가치관이 많이 변하였다는 증거들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나온영과 차재호(1999)가 1970년대와 1990년대 한국인의 가치관을 비교한 결과에 의하면, 남녀 평등의식, 풍요로운 생활, 개인주의 경향이 크게 증가되었다.

생활만족도 형성에서의 세대집단간 차이

이 연구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는 청소년, 성인, 노인집단 각각을 대상으로 생활만족도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탐색하고, 이들 변인들의 상대적인 설명력의 차이를 살펴보는 데 있다. 분석 결과로부

터 다음과 같은 몇가지 현저한 특징들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청소년과 성인 및 노인집단 모두에서 관계효능감이 생활만족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관계효능감이 생활만족도의 형성에 영향력있는 변인이라는 사실은 이미 선행연구들에서 확인된 바다. 김의철, 박영신, 및 박금주(1998)의 연구에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 환경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으로 검토한 바에 의하면, 관계효능감(도시: $\beta = .18$, 농촌: $\beta = .25$)이 가장 설명력이 높은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관계효능감 외에도 어려움극복효능감이라든가 자기주장효능감 사회성효능감 등 효능감의 하위변인들이 전반적으로 의미있게 중요한 변인으로 포함되고 있다. 이와 같이 효능감이 생활만족도 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결과는, 최근 연구자들이 수행한 연구(박영신, 김의철, 김영희, 민병기, 1999;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이상미, 권혁호, 예정)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둘째, 청소년과 성인 및 노인집단 모두에서 가정의 사회경제적지위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점이다. 이 연구에서 사회경제적지위는 교육정도 직업수준 경제생활정도 변인을 의미하며, 청소년은 부모의 사회경제적지위를, 성인은 본인과 배우자의 사회경제적지위를, 노인은 본인과 가장의 사회경제적지위를 기록한 것이다. 김의철 등(1998)의 연구에서 도시 청소년의 경우에 가정의 사회경제적지위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박영신과 김의철(1999b)의 연구에서도 초 중 고 대학생집단 모두 생활만족도와 사회경제적지위는 동일 요인에서 정적인 부하량을 나타내었다. 또한 노인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이신숙, 1997), 경제적으로 안정될수록(박성연, 최혜경, 1985)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은퇴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낮은 것은 역할의 상실에 기인하기보다 은퇴에 따르는 수입의 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밝힌 Chatfield(1977)의 결과는 노인의 경제적 안정이 생활만족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

음을 보여준다.

청소년이나 성인과는 달리 노인의 생활만족도 형성에서 독특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두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노인이 살고 있는 가정의 형태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즉 대가족에서 생활하는 노인이 핵가족에서 생활하는 노인보다 생활만족도가 높다. 장상희(1982)의 연구에서도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의 경우가 별거하는 노인의 경우보다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의 정신건강을 위해 핵가족보다는 대가족 형태가 보다 긍정적임을 보여준다. 윤진(1987)은 노화에 따라 역할의 상실 또는 변화, 신체 및 정신건강의 퇴화, 자유로운 환경통제의 곤란 등이 노인으로 하여금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만들고, 이러한 노인의 의존성은 경제적, 신체적, 정신능력, 사회적, 심리적인 측면에서 나타나는데, 앞의 네가지 의존성은 정부 사회보호기관 전문가에 의해 해결될 수 있지만, 심리적 의존성과 감정적 안정의 문제는 그 의존대상이 가족일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 특히 한국은 사회보장제도가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들은 가족에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윤진(1987)의 논의는 이 연구에서 실제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된 결과와 관련된다. 즉 대가족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은 가족들과 정서적인 유대가 강하게 형성되고 가족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건에 놓여 있기 때문에 생활만족도가 더욱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노인이 진보지향적인 가치관을 지니고 있을수록 높은 생활만족도를 지닌다. 세대집단별 비교에 의하면, 청소년이 가장 진보지향적 가치를 추구하며, 노인이 가장 보수지향적인 가치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와 관련하여 볼 때, 노인이 젊은 세대와 상치되는 보수적인 가치관을 고집하기 보다는, 젊은 세대의 가치의식을 유연하게 수용하고, 보다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을 때 갈등이 적고 생활에서의 만족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이나 노인의 생활만족도 형성에 영향력있는 변인으로 투입되지 않았으나, 성인에게만 독특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있다. 그 중에서 특히 자

아실현과 관련된 생활목표의식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그러므로 성인은 생활의 목표로서 보람된 일을 통해 의미있는 삶의 추구하므로써 자아를 실현한다든가, 관심있는 분야에서 성취하여 인정받는 등 성공적인 직장생활을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높은 생활만족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자아실현 생활목표의식 외에도 다른 세대 효능감 평가가 성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있는 변인으로 작용한다. 성인이 부모로서 자기 자녀의 효능감을 높게 평가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의미는, 한국 성인의 정신건강을 위해 자녀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를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결과이다. 이와 같이 한국 성인들에게 있어 자녀문제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김의철과 박영신(1998)의 연구에서도 시사되고 있다. 한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가장 자랑스러운 성공경험을 질문하였을 때, 직업관련 반응이 37.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가정생활(25.0%)이었으며, 자기개발(9.7%), 학업(5.0%)의 순서로 나타났다. 한국 성인들은 자기개발과 관련된 일에서의 성취보다 가정생활과 관련된 성취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이러한 가정생활에서의 성공에 '자녀의 발전'(4.7%) 및 '자녀교육'(3.2%)이 중요한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다. 즉 자녀가 성공하고 자녀를 잘 교육시키는 것을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성공경험으로 인식하는 한국 성인들이 상당수 있다.

청소년의 경우도, 성인이나 노인과는 달리 생활만족도 형성에 있어 독특하게 나타나는 측면들이 있다. 부모와의 세대갈등이 적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는데, 이는 성인이나 노인은 세대갈등 문제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있는 변인으로 포함되지 않는 사실과 대조된다. 또한 연령은 생활만족도와 부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다. 김명언 등(2000)의 연구에서도 10대에서 20대로 됨에 따라 생활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이외에도 보수지향 가치관 및 학업성취가 생활만족도를 설명하는 의미있는 변인으로 추가되었다. 청소년은 성인이나 노인에 비해 보수지향 가치를 추구하는 정도가 가장 낮고 이와 반대로 진보지향 가치를 선호하는 정도가 가장 높은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청소년이 보수지향 가치관을 갖고 있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은, 다른 세대의 가치와 태도에 대해 유연할수록 생활에서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는 노인의 경우에 진보지향가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결과와 동일한 맥락에서 해석된다.

이 연구는 방법의 면에서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다. 노인 분석대상이 청소년이나 성인에 비해 현저하게 적으므로써, 표집집단의 수에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청소년은 집단으로 질문지를 실시하고, 성인은 개별적으로 하였으나 각자가 응답하므로써 자료수집이 용이하였다. 반면에 노인은 노안과 낮은 집중력 등의 이유로 인해 질문지에 각자 응답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여, 1대 1 면접방식으로 질문을 모두 읽어주고 연구 조교가 질문지에 반응을 대신 기록해주는 방식으로 하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료수집의 수가 제한되었다.

또한 측정변인의 신뢰도 면에서 볼 때, 대부분의 하위변인들은 양호하나, 부분적으로 신뢰도가 낮게 나타난 경우도 있다. 김명언 등(2000)의 연구에서 지적인 바와 같이 신뢰도가 낮은 일부 변인들, 즉 자기 조절 대처양식과 회피 대처양식 및 부러워하는 대상: 인기직, 전통지향 역할행동과 진보지향 역할행동, 보수지향 가치관에 대해서는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청소년과 성인 노인세대간의 차이와 유사성을 밝히고, 세대집단간 차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세대집단별 성별 상호작용 현상을 분석하므로써, 세대차이와 관련된 현상에 대한 보다 정교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였다. 나아가서 생활만족도 형성에서의 세대집단간 차이를 규명하므로써, 각 세대집단들의 생활만족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간의 비교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특히 청소년, 성인, 노인들의 생활만족도 형성과 관련된 연구의 기초자료로 가치가 있다. 특히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의 구성비가 점차 증가(1970년: 3.1%, 1975년: 3.5%, 1980년: 3.8%, 1985: 4.3%, 1990: 5.1%, 1995년: 5.9%, 통계청, 2000)하는 경향을 고려하여 볼

때, 노인의 정신건강 문제는 다각도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 연구의 결과는 노인의 생활만족도 형성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해 시사하는 바 크다.

후속연구에서는 세대차의 문제를 청소년과 부모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Bengtson과 Kuypers(1971)는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 보고하는 것보다, 중년의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를 더 가깝고 의견의 차이가 적은 것으로 보고하는 현상과 관련하여, 발달적인 관심의 차이에 대한 가정(developmental stake hypothesis)을 제안한 바 있다. 즉 기성세대는 연속성과 전달에 보다 관심이 있다면, 청소년 세대는 자율과 혁신에 관심이 더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최근에는 개인차원의 발달적 가정 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적 차원의 세대간 관심의 차이에 대한 가정(intergenerational stake)에 기초를 두고 논의(Giarrussi, Stallings, & Bengtson, 1995)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외에도 청소년과 부모의 관계를 세대차의 문제와 관련하여 다양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부모와 자녀 각각의 생활만족도가 세대갈등이나 자기효능감과 어떠한 관련을 갖고 있고, 부모는 자녀의 심리 행동특성으로부터, 또한 자녀는 부모의 심리 행동특성으로부터 상호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경신(1998). 가족가치관의 세대별 비교연구 -노년, 중년, 청소년세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6(10), 145-161.
- 김두섭, 박경숙, 이세용(1999). 중년층의 세대관계와 노후부양관. 삼성생명 사회정신건강연구소, 연구보고서 99-6.
- 김명언(1997). 정부정책, 가족생활 그리고 직장에서의 공정성. 석현호(편).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공정성. 8장. 서울: 나남출판사.
- 김명언, 김의철, 박영신(2000). 세대갈등과 사회질서(I): 청소년과 성인세대의 차이와 유사성. 한국심

- 리학회지: 사회문제, 6(1), 181-204.
- 김의철, 박영신(1997). 스트레스 경험, 대처와 적응결과: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 96-126.
- 김의철, 박영신(1998). 한국인의 성공의식과 귀인양식: 토착심리학적 접근. 교육심리연구, 12(2), 51-84.
- 김의철, 박영신(1999). 한국 청소년의 심리 행동특성의 형성: 가정 학교 친구 사회 영향을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13(1), 99-142.
- 김의철, 박영신, 박금주(1998). 한국 청소년의 생활만족도와 스트레스 형성요인: 도시와 농촌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3(1), 79-101.
- 나은영, 민경환(1998). 한국 문화의 이중성과 세대차의 근원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및 기존 조사자료 재해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4(1), 75-93.
- 나은영, 차재호(1999). 1970년대와 1990년대 간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와 세대차 증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37-60.
- 문용린, 류방란, 유한구, 박종효, 최지영(1996). 신세대의 이해: 그들의 의식과 유형.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구소.
- 박광배, 김미숙(1992). 한국 청소년의 집단주의적 가치체계: 가족관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6(2), 62-75.
- 박성연, 최혜경(1985). 노인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초연구: 가족부양체계를 중심으로 한 인과모형의 검증. 대한가정학회지, 23(1), 71-85.
- 박영신, 김의철(1999a). 실패와 미래성취에 대한 의식: 토착심리학적 접근. 교육학연구, 37(3), 139-172.
- 박영신, 김의철(1999b). 귀인양식의 변화와 개념구조에 대한 분석. 교육심리연구, 13(3), 119-165.
- 박영신, 김의철(2000). 경제불황기의 실직자와 직장인 스트레스 경험, 대처와 사회적 지원: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1), 85-117.
- 박영신, 김의철, 김영희, 민병기(1999). 초등학생의 생활만족도 형성요인에 대한 구조적 관계 분석: 사회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5(1), 57-76.
- 박영신, 박동현, 김의철(1998).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효율적 안전교육의 방향 탐색: 작업자, 안전관리자, 공무원의 안전효능감을 중심으로. 사회교육학연구, 4(1), 277-307.
-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이상미, 권혁호, 양계민(예정). 초·중·고등학생의 생활만족도 차이와 형성 및 영향.
- 박재홍(1992). 한국 사회의 세대문제: 질적 접근. 한국사회사 연구회. 한국사회사연구회 논문집, 38, 11-66, 서울:문학과 지성사.
- 박재홍(1995). 신세대의 일상적 의식과 하위문화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사회학, 29, 651-683.
- 박재홍(1999). 기성세대의 생애사와 세대차이 인지에 관한 연구: 질적 접근. 한국사회학, 33, 257-296.
- 서병숙, 이현(1995). 사회적 지원망과 노인의 생활만족도: 도시와 농촌의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33(3), 43-57.
- 유호식(미간행 논문). 한국 영화에 나타난 세대갈등: '맨발의 청춘'(1964)과 '비트'(1997)를 중심으로.
- 윤진(1987). 현대사회와 노인의 적응문제. 한국심리학회 심포지움. 현대 산업사회와 인간적응, 19-34.
- 윤진(1995). 성공적 노화와 삶의 질: 한국 노인 대상연구에서 고려할 측면들. 한국심리학회 춘계 심포지움, 45-76.
- 이건우(미간행 논문). 대중가요의 검열과 세대갈등: 세기말의 힙합문화를 중심으로.
- 이시형, 이재연, 정선아, 정현희(1999). 노인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 및 부양의식. 삼성 사회정신건강 연구소 연구보고서 99-2.
- 이신숙(1997). 노인이 경험하는 긴장상태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완충효과. 대한가정학회지, 35(4), 199-210.
- 임희섭(1986). 사회변동과 가치관. 서울: 정음사.
- 장상희(1982). 대도시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부산시를 대상으로. 사회조사연구, 2(1), 49-64.

- 통계청(2000). 통계자료: 인구증가율, 인구구성비.
- 한국사회학회 편(1990). *한국 사회의 세대문제*. 서울: 나남출판사.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Freeman.
- Baltes, P., & Baltes, M. (1990). *Successful aging: Perspectives from the behavioral sciences*.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engtson, V. L. (1970). The generation gap: A review and topology of social-psychological perspectives. *Youth and Society*, 2, 7-32.
- Bengtson, V. L., & Kuypers, J. A. (1971). Generational difference and the "developmental stake". *Aging and human development*, 2, 249-260.
- Elder, G. H. Jr. (1981). History and the life course. In D. Bertaux (Ed.), *Biography and society: The life history approach in the social sciences* (pp. 77-115). Beverly Hills, Calif: Sage.
- Elder, G. H. Jr. (1994). Time, human agency, and social change: Perspectives on the life course.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7, 4-15.
- Giarrussi, R., Stallings, M., & Bengtson, V. L. (1995). The "Intergenerational stake" hypothesis revisited: Parent-child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relationships 20 years later. In V. L. Bengtson, K. W. Schaie, & L. M. Burton, (Eds.), *Adult intergenerational relations: Effects of societal change*.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Hofstede, G. (1991). *Cultures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the mind*. London: McGraw-Hill.
- House, J. S., Landis, K. R., & Umberson, D. (1988). Social relationships and health. *Science*, 241, 540-545.
- Inglehart, R. (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societi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ahn, H. (1979). *World economic development: 1979 and beyond*. Boulder, CO: Westview Press.
- Krueger, R. A. (1994). *Focus groups: A practical guide for applied research*.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
- Mannheim, K. (1952). The problem of generations. *Essays on the sociology of knowledge*. 276-321.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Traub, S. H., & Dodder, R. A. (1988). Intergenerational conflict of values and norms: A theoretical model. *Adolescence*, 23(92), 975-989.
- Triandis, H. C., Bontempo, R., Villareal, M. J., Asai, M., & Lucca, N. (1988).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Cross-cultural perspectives on self-in-group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54, 323-338.
- Yu, A. B., & Yang, K. S. (1994). The nature of achievement motivation in collectivistic societies. In U. Kim, H. C. Triandis, C. Kagitcibasi, S. C. Choi, & G. Yoon (Eds.),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Theory, method, and applications*, (pp. 239-250). Thousand Oaks, CA: Sage.

Intergenerational Differences and Life-satisfaction: Comparative Analysis of Adolescents, Adults, and the Elderly

Kim, Uichol Park, Young-Shin Kim, Myung-Un Lee, Kyeun-Woo Yu, Ho-Shik
Dept. of Psychology Dept. of Education Dep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Inha Universit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generational differences and life-satisfaction among a sample of adolescents, adults, and elderly. A total of 2,789 participants (1,298 male, 1,489 female participants, and 2 missing) of which 981 were adolescents, 1,661 were adults, and 147 were elderly, completed a survey developed by the present researchers, in addition to the self-efficacy subscales developed by Bandura (1997). The results indicated significant interaction between generation and gender. First, intergenerational conflict was greatest for female adolescents and elderly males. Second, male adolescents and elderly females were more likely to hold conservative values. Third, male adolescents scored higher than females adolescents on self-efficacy to control distressing rumination and resiliency, while such differences were not found for elderly. Fourth, for self-regulatory efficacy, males adolescents scored higher than female adolescents, while the opposite was true for the elderly. Fifth, female adolescents and elderly males were more likely to use mobile phones than their counterpart. For main effects, first, elderly perceived greatest intergenerational conflicts. Second, adolescents were most likely to hold progressive values. For life goals, social service was the highest mean for the elderly, while self-actualization was the highest for adolescents. Third, elderly preferred professional careers (e.g., doctors, professors), while adolescents preferred occupation in the entertainment sector (e.g., musicians, athletes). Fourth, elderly were more likely to adopt coping strategies that emphasize avoidance or seeking social support. Fifth, the elderly preferred traditional sex-role differentiation, while adolescents preferred more egalitarian role obligations. For TV programs, adolescents preferred variety shows, and the elderly preferred drama. For music, adolescents preferred Hip-Hop and Rock 'n Roll, while the elderly preferred traditional and nostalgic music. For life-satisfaction, those with higher socio-economic status, self-efficacy beliefs, conservative values, and low intergenerational conflict had higher life satisfaction. Finally, those elderly who live in the extended family, rather than nuclear family, and those who had progressive values had higher life-satisfaction scores.